

I . 자연 환경

1. 생태학적 특성
2. 지리학적 특성
3. 인류학적 특성

I. 자연 환경

1. 생태학적 특성

1) 한반도의 위치와 지형

(1) 위치

우리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반도이다. 남북으로 기다란 한반도는 33°~43°N, 동서로 124°~132°E 범위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위치를 정확히 四極으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한반도의 면적은 약 22만 km²이고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km²이며, 그 중앙을 지나는 緯線은 38°N선이고 經線은 약 127°E선이다. 우리 나라는 위도상으로 북반구의 중위도에 자리잡고 있어서 기후가 온난하고 계절변화가 뚜렷하여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다.

<표 1> 한반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四極

| 사극 | 행정구역 | 위도·경도 |
|----|-----------------|-----------------|
| 극동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 동경 131° 52' 42" |
| 극서 |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서단 | 동경 124° 11' 00" |
| 극남 |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 | 북위 33° 06' 40" |
| 극북 | 함경북도 온성군 유진포 북단 | 북위 43° 00' 30" |

자료 : 국립지리원 측지과, 한국통계연감 2000, 통계청 제47호.

(2) 지형

어느 지역의 기후와 생물분포를 이해하려면 그 地形을 알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지형은 지질시대인 제3기 中新世(2,400만 년~500만 년 전) 이후에 단층과 요곡 운동으로 대체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른바 傾東地形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해안 쪽에 치우쳐서 등줄기를 이룬다. 이 등줄기는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으로 서서히 낮아져서 서해안에 이른다. 그들 산지 사이의 경사를 따라 하천이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하천의 중·하류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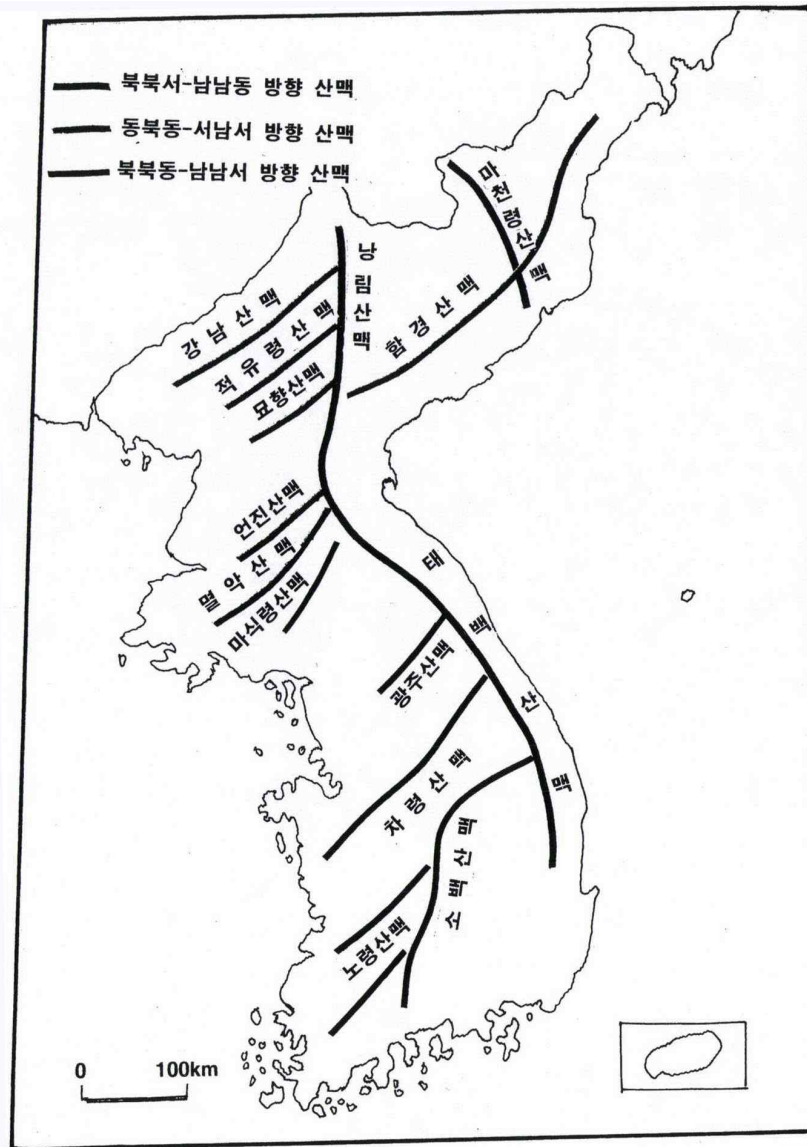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지형은 산맥 분포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 즉 한반도의 방향과 거의 평행하게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이 뻗어서 등뼈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강남산맥·적유령산맥·묘향산맥·언진산맥·멸악산맥·함경산맥이 뻗으며,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이 뻗는다. 마천령산맥에는 백두산(2,744m)을 비롯하여 북포태산(2,289)·남포태산(2,435m)·관모봉(2,136m)·두류산(2,309m) 등 2,000m 이상의 높직한 산들이 솟아 있고 이 일대에 평균고도 1,500m 이상의 개마고원이 펼쳐진다. 태백산맥에는 금강산(1,638m)·향로봉(1,293m)·설악산(1,549m) 등의 명산이 분포한다.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소백산맥에는 소백산(1,400m)을 비롯하여 속리산(1,057m)·민주지산(1,242m)·덕유산(1,608m)·대덕산(1,290m)·백운산(1,277m)·지리산(1,915m)·무등산(1,187m) 등 1,000m 이상의 산이 즐비하고, 멀리 바다를 건너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다.

긴 하천인 압록강·대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은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서해와 남해로 흐른다. 동해로 흐르는 긴 하천은 두만강뿐이고 나머지는 짧은 하천들이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대단히 복잡하지만 동해안은 단순하다. 서해안은 압록강 하구에서 전라남도 해남에 이르는 구간으로 직선거리 650km이지만 실제 거리는 4,719km에 달하고, 남해안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부산 송도까지의 구간으로 직선거리가 255km에 불과하지만 실제

<그림 1>

한반도의 산맥



거리는 2,246km에 달하여 복잡함을 보이고, 동해안은 부산 송도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구간으로 직선거리 809km인데 실제거리는 1,727km이어서 단순함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의 연안에는 수많은 도서가 산재하여 모두 3,418개에 이른다. 이 중에서 약 3분의 1이 유인도이고, 나머지는 무인도이다. 제주도(1,862km²)를 비롯하여 거제도(383.5km²)·강화도(319.8km²) 등의 넓은 도서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고, 울릉도(72.8km²)만이 동해에 있다.

2) 한반도의 기후

(1) 기후 특성

한반도의 위치는 熱收支上 열이 부족한 한대지역이나 열이 남아나는 열대 지역의 경계선 위에 있다. 따라서 열을 수송하기 위한 大氣活動이 활발하고, 또한 기단과 기단 사이의 경계선인 전선과 고·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는 지역이다.

고기압으로는 겨울철의 시베리아 고기압과 여름철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이밖에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과한다. 저기압으로는 중국 내륙이나 황해에서 발생하여 한반도를 가로질러 동해로 빠져나가는 온대성 저기압과 태평양에서 발생하여 태풍을 몰아 오는 열대성 저기압이 있다. 온대성 저기압은 일년 내내 통과하는데 특히 4월부터 7월 사이에 자주 통과하여 이때마다 날씨가 흐리며 비를 내리게 한다. 이밖에 한반도는 4계절에 걸쳐 寒暖·乾濕의 성질이 다른 기단의 영향을 받아 기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기단은 넓은 지역에 걸치는 大氣候를 결정하는데 비하여 지형은 대기후에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작은 규모의 中氣候나 小氣候(국지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변두리에 위치하므로 반도이지만 大洋에 면해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가 해양보다 대륙의 영향을 더 받는다. 그래서 북부로 갈수록 대륙의 영향을 크게 받고 남부로 갈수록 해양의 영향을 받아 기후 차가 나타난다. 특히 연안을 흐르는 해

류는 기후의 지역 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난류인 東韓海流와 한류인 北韓海流는 동해안의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해류는 겨울에 발달하여 경상북도 竹邊 부근까지만 남하하므로 그 이남의 연안은 연중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서해안에는 난류인 제주해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세력이 미약하고 발해 쪽에서 남하하는 冷水塊인 연안류가 서해안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겨울에 몹시 차가워진 해수는 여름이 되어 표면수가 따뜻해져도 저층수가 찬 채로 머물러 있으므로 이 냉수괴로 말미암아 서해안 북부지역에 비가 적어지고, 또한 이 냉수괴는 다도해 근처까지 내려와서 가뭄과 짙은 안개를 자주 일으킨다.

기후는 위도에 따라 열대·온대·한대로 크게 나누거나 기온과 植生을 기초로 하여 나눈다. 열대와 온대의 구분은 야자수의 自生限界인 연평균기온 20°C 의 등온선으로 하고, 온대와 한대의 구분은 수목의 北限界가 되는 最暖月の 평균기온 20°C 의 등온선으로 한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8^{\circ}\text{C} \sim 14^{\circ}\text{C}$ 이고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이 $20^{\circ}\text{C} \sim 26^{\circ}\text{C}$ 이므로 온대에 속한다.

한반도의 기후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륙성 기후이다. 대륙성기후의 특징은 여름에 몹시 덥고 겨울에 추운 데 있다. 우리 나라는 여름(8월)의 평균기온이 25°C 내외이고 일최고기온이 30°C 이상으로 열대 못지 않게 더운 날이 계속된다. 그리고 겨울(1월)의 평균기온은 $-20^{\circ}\text{C} \sim 0^{\circ}\text{C}$ 로 한대와 같이 몹시 추운 날이 계속된다. 우리 나라의 한 지점과 다른 나라의 지점을 비교하면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의주, 서울 및 부산의 8월 평균기온은 각각 23.9°C , 25.4°C 및 25.4°C 로서 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열대인 싱가포르의 27.5°C 와 비슷한 더위이다. 그리고 북위 41° 에 위치한 중강진과 같은 위도에 있는 로마의 1월 평균기온은 각각 -20.8°C 와 7.0°C 이다.

한반도는 계절에 따라 바람 부는 방향이 바뀌는 季節風氣候 지대이다. 우리 나라의 각 지점의 평균풍향은 11~3월 사이에 北西風이 불고, 4~9월 사이에 南風이 분다. 즉 겨울에는 대체로 북서풍이, 여름에는 남풍이 불어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계절풍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가 계절에 따라 반대 방향의 대기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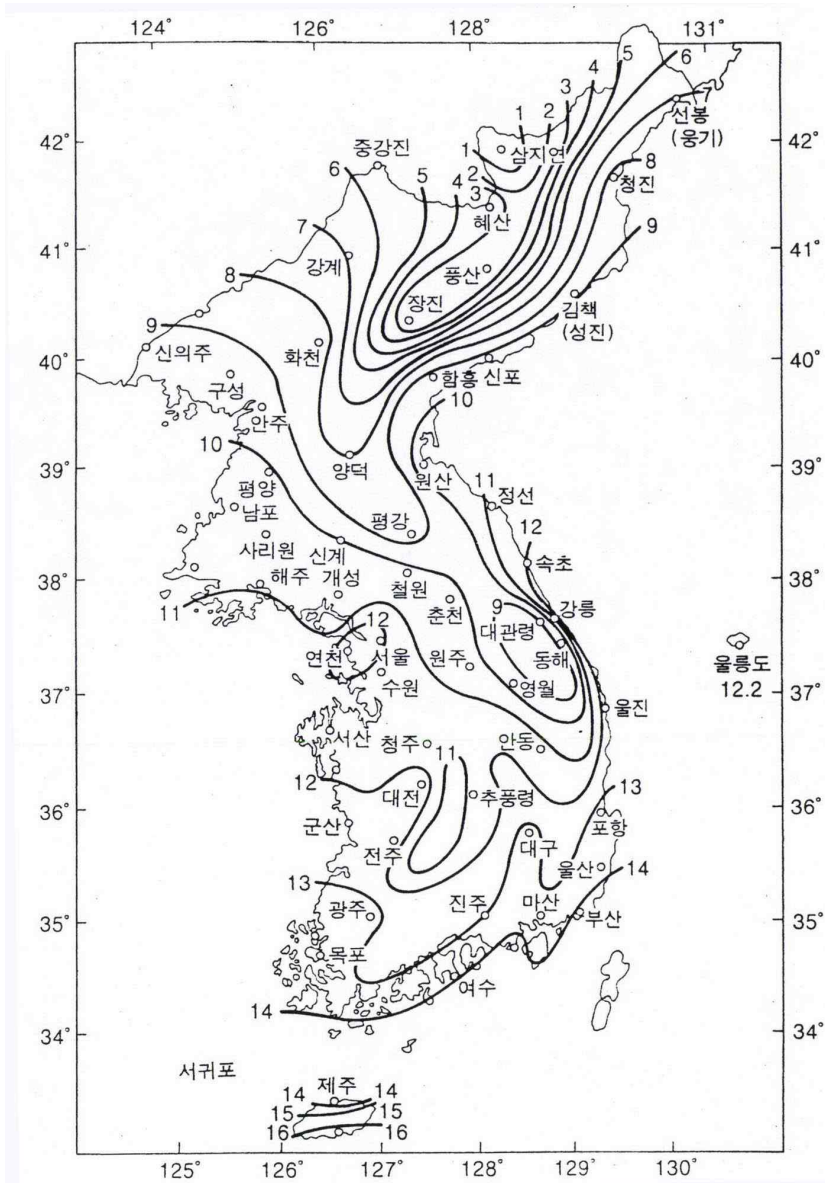
한반도의 계절풍은 雨期와 乾期를 가져온다. 여름 계절풍은 북태평양 기단에서 불어오는데 이 多濕하고 안정한 대기가 장마 전선대에 유입되면 장마비가 내린다. 즉 한반도에 장마전선이 정체되었을 때 이를 향해 다습한 남서 또는 남동 계절풍이 불면 장마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겨울의 북서 계절풍은 건조하고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에서 불어온다.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화되면 여기에서 차가운 공기가 넘쳐 나와 동아시아 일대는 북서계절풍이 불게 된다.

시베리아고기압이 형성되는 시일은 3~4일로 3寒이 되고, 그 동안에 西高東低의 기압배치가 약해지고, 이틈을 타서 揚子江 부근이나 동지나해에서 생긴 온대성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므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4溫이 된다. 이러한 3한4온의 기온변화는 겨울 동안 되풀이하여 일어난다.

(2) 기온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남부가 높고 북부가 낮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15℃로 가장 높고 표고 1,386m인 삼지연은 0.2℃로 가장 낮다. 포항-대구-광주를 잇는 선의 이남인 남부와 남해안은 13℃~14℃로서 제주도 다음으로 높다. 12℃의 등온선은 동해안의 속초에서 태백산지를 따라 남하하여 추풍령-전주-대전을 거쳐 태안반도 남쪽으로 빠진다. 10℃의 등온선은 동해안의 함흥-원산을 지나고 태백산맥을 돌아 대동강 하류로 연결된다. 8℃의 등온선은 동해안의 청진에서 시작하여 낭림산맥 남단부의 내륙지역에서 곡선을 이루고 개마고원의 남단을 따라 동서로 뻗는다. 등온선은 대체로 내륙의 산간지역에서 남쪽으로 깊숙히 굽음으로써 내륙이 해안지역 보다 기온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해안이 서해안지역보다 기온이 높아서 기온의 동서 차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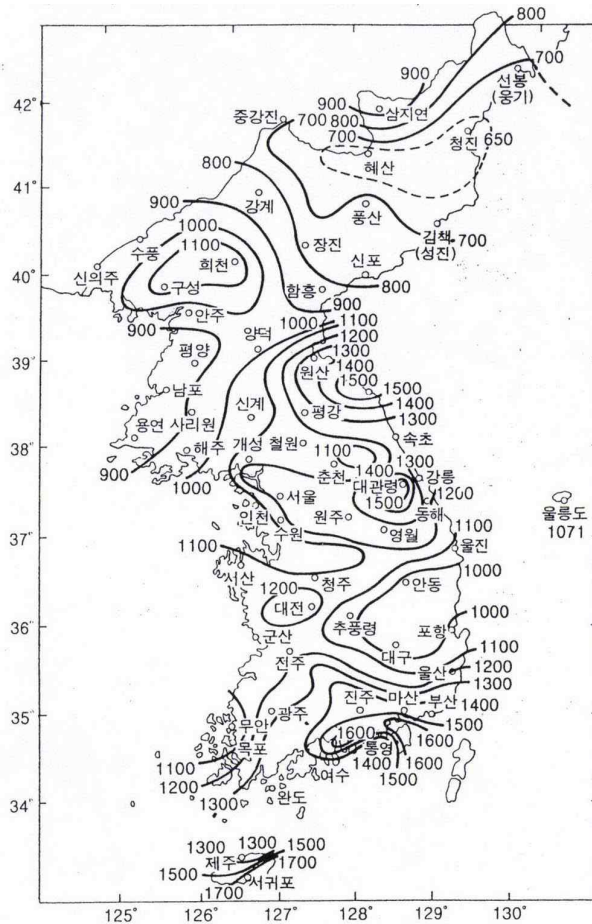
〈그림 2〉 한반도의 연평균기온(°C)의 분포(이현영, 2000)



(3) 강수량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습윤지역이다. 연강수량은 500~1,700mm이고 전국토의 평균치는 1,190mm이다. 한반도는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매우 커서 6~9월의 여름철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60% 이상이며 때로는 일강수량이 수 백 mm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도 있다.

〈그림 3〉 한반도의 강수량 분포(이현영, 2000)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고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강수량의 분포는 지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남부로부터 북부로 갈수록 점차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연강수량은 남해안지역이 1,500mm 정도로 많고 한반도 북동부 지역이 600~800mm로 적다. 연강수량이 많은 제주도(1,600~1,700mm)와 지리산 서남쪽의 남서해안지역(1,500~1,700mm)은 다습한 여름 계절풍과 태풍의 영향을 받아 큰 비가 자주 내린다. 울릉도는 1,200~1,400mm로 강수량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의 강설량이 많은 것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연강수량이 많은 곳은 남서계절풍과 양쯔강 유역에서 동진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태백산맥의 풍상측, 즉 임진강과 한강의 상류지역(1,200~1,300mm)이다. 그리고 화북지방과 몽고에서 이동해오는 저기압이 낭림산맥을 넘을 때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 때문에 청천강의 중상류지역(1,100~1,200mm)도 비가 많은 편이다.

연강수량이 950mm가 넘는 삼지연 부근을 제외하면 함경북도와 양강도 및 함경남도 일부를 포함한 한반도의 북동부 지역에서 연강수량이 600~800mm로 적다. 한편 비가 적은 지역인 낙동강 상류의 안동·의성·춘양 등지에서도 연강수량이 1,000mm에 미치지 못하여 물부족 현상을 자주 겪는다.

(4) 한반도의 기후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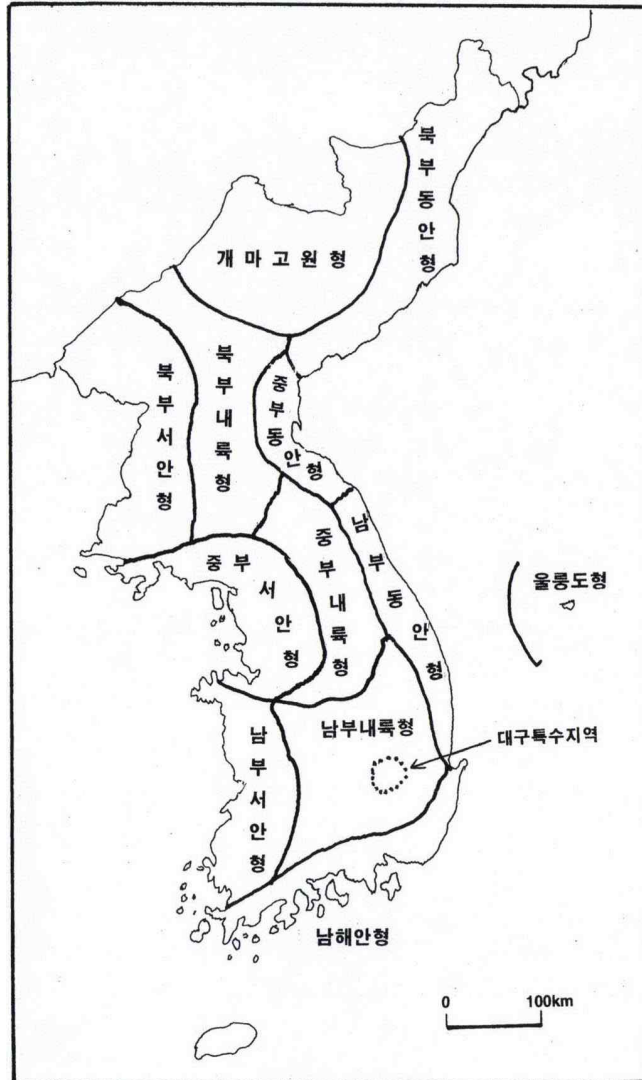
한반도의 기후구분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李泳澤(1973)이 연구하고 학계의 검증을 거쳐 교과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설명한다.¹⁾

Köppen은 온대와 냉대 기후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最寒月의 평균기온이 -3°C 의 등온선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은 너무 영성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더하여 세분한 것이 이영택의 기후구분이다. 먼저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서로 나누고, 다음에 서쪽의 넓은 해안지역을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西岸型和 內陸型으로 구분한다. 동쪽 해안지역은 난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남북의 차가 있어 북부·중부·남부로 구분한다. 또 북부의 고원지역은 대륙성이 강하므로 蓋馬高原型으로 하

1) 金蓮玉, <한국의 기후구>(《韓國地誌》, 건설부·국립지리원, 1980), 233~238쪽.

고, 이와 대조적으로 해안의 영향을 항상 받는 남해안지역은 南海岸型으로 구분한다. <그림 4>는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한 한반도의 기후구이다.

<그림 4> 한반도의 기후구



서안형을 다시 북부서안·중부서안·남부서안의 3형으로, 내륙형은 북부내륙·중부내륙·남부내륙의 3형으로, 동안형은 북부동안·중부동안·남부동안의 3형으로 나눈다. 이밖에 개마고원형과 남부해안형 및 울릉도형의 3형이 있으므로 모두 12소기후구로 나뉜다. 더욱 남부내륙형 안에 대구특수지역이 포함되므로 모두 13소기후구가 된다. 소기후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마고원형 : 개마고원은 한반도의 지붕이라 일컫는 높은 지역이다. 대륙성 기후이며 월평균기온 0℃ 이하인 달이 5개월 이상 계속된다. 1월 평균기온 -14℃~-20℃, 7월 평균기온 20℃~24℃, 연평균기온 2℃~6℃이다. 기온의 年較差는 40℃ 이상으로 심한 대륙성기후이며, 연강수량은 600~800mm의 소우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아한대침엽수림이 무성하다.
- ② 북부동안형 : 함경산맥의 남사면 지역으로 영흥 부근의 구릉을 경계로 하여 중부동안형과 구분된다. 연평균기온 6℃~8℃, 연강수량 600~700mm의 가장 소우지역이다.
- ③ 북부서안형 : 낭림산맥의 서사면 중에서 북부서안에 면한 지역이며, 대체로 평야를 북에서부터 연결하는 삭주·영변·신막을 잇는 선의 내륙형과 경계하며, 남쪽은 멸악산맥을 경계로 중부지방과 경계한다. 연평균기온 9℃~11℃, 1월 평균기온 -8℃~-10℃로 같은 위도의 동해안지방보다 추운 편이다. 연강수량 1,000~1,300mm로 3대 다우지역의 하나이다.
- ④ 북부내륙형 : 북부서안형의 내륙쪽이며 낭림산맥 서쪽의 높은 산지와 구릉지이다. 연평균기온 8℃~10℃, 연강수량 1,000~1,100mm로 북부서안형보다 대륙성이다.
- ⑤ 중부동안형 : 금강산 이북과 영흥 구릉 이남의 영흥만 이남 지역이다. 연평균기온 8℃~10℃, 1월 평균기온 -2℃~-7℃로 같은 위도의 북부 내륙보다 따뜻하고 강수량도 많은 편이다.
- ⑥ 중부서안형 : 북으로 멸악산맥, 남으로 차령산맥과 경계하고, 동으로 약 500m 이하의 구릉과 경계하는 예성강·임진강·한강의 하류지역이다. 연평균기온 10℃ 내외, 1월 평균기온 -3℃ 내외, 8월 평균기온 25℃를 넘는 춥고 더운 지역이다. 연강수량 1,100~1,200mm로 한강 하류에서는 1,300mm를 기록하는 다우지역이다.
- ⑦ 중부내륙형 : 태백산맥의 서사면과 충북의 북부지역이다. 춘천·원주 등 많은 분지와 약 500m의 평탄한 산지로 되어 있어 중부서안형보다 높은 고랭지 기후이다. 연평균기온 10℃~13℃, 연강수량 1,000~1,200mm로 많은 편이다.
- ⑧ 남부동안형 : 금강산 이남에서 포항에 이르는 태백산맥의 동사면이다. 동한 난류와 태백산맥을 불어 내리는 높새바람(föhn) 현상으로 겨울 기온이 서해

안 지역보다 따뜻하다. 연평균기온은 12℃~13℃, 연강수량 1,000~1,100mm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

- ⑨ 남부서안형 : 차령산맥 이남의 서해안지역으로 1월 평균기온 -3℃의 등온선이 온대와 냉대 기후를 경계하는 이남 지역이다. 동쪽의 남부내륙형과는 전주-광주를 잇는 선으로 경계한다. 연평균기온 12℃~14℃로 온화하고 연강수량 1,000~1,200mm로 겨울 강수량이 비교적 많고, 겨울과 봄에 흐린 날이 많다. 연안의 도서는 기온이 낮고 비가 적으며 안개 일수가 많다.
- ⑩ 남부내륙형 : 소백산맥의 양 사면과 낙동강 상·중류의 넓은 내륙지역이다. 연평균기온 11℃~13℃이며 특히 여름에 30℃ 이상으로 오른다. 강수량은 소백산맥 일대에서 1,100~1,300mm이고, 낙동강 상·중류에서 900~1,100mm로 남한 제일의 소우지역이다. 비가 적고 기온이 높은 대구는 특수지역으로 다룬다.
- ⑪ 남해안형 : 남해안과 제주도도 포함된다. 1월 평균기온 0℃의 등온선으로 북한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연평균기온 13℃~14℃, 연강수량 1,300~1,500mm로 비가 많은 지역이며 난대림의 분포지역과 일치한다.
- ⑫ 울릉도형 : 동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해양성 기후이다. 연평균기온 12℃, 연강수량 1,500mm이다. 겨울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30%로 여름 강수량보다 많고 계절풍형 강수가 많다.

3) 식 생

(1) 한반도의 자연식생과 잠재자연식생

식생(vegetation)은 어느 지역의 땅 위를 덮고 있는 식물을 통틀어서 말한다.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연 그대로 유지된 식생을 自然植生 또는 原植生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자연식생은 사람의 간섭을 받아 대부분 훼손되었다. 역사적으로 국력이 쇠약한 시기일수록 자연식생의 훼손 정도는 극심하였다. 예를 들면 대한제국의 말기에 러시아인과 청국인들이 우리의 자연식생을 훼손시킨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 하에서도 자연식생이 남벌되었고 한국전쟁 중에도 남벌이 극심하였다. 하지만 기후 조건이 온화한 우리 나라는 한번 훼손된 식생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복원된다. 이렇게 변형되어 현재 남아 있는 식생을 現存植生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현존식생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대치된 代償植生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식생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면 환경은 현존식생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식생(원식생)에 가까운 식생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식생은 이론적으로 현재의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진 潛在自然植生이라고 말한다. 이 잠재자연식생은 각각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식생으로 된다. 즉 현재의 환경은 유사 이전에 자연식생을 유지하였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잠재자연식생은 본래의 자연식생(원식생)과 똑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삼림식생분포도는 각 지역의 기후요인과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삼림식생분포

전세계의 식생분포는 전북구·신열대구·구열대구·남대구의 4區系界로 나뉘고, 한반도는 全北구계계 속의 중국-일본구계에 소속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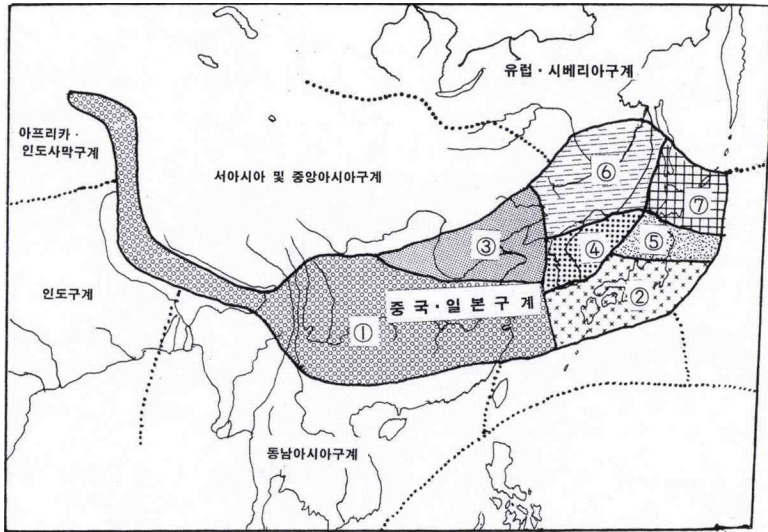
중국-일본구계는 같은 전북구계계에 속하는 유럽-시베리아구계, 서아시아-중앙아시아구계, 아프리카-인도사막구계 및 구열대구계계에 속하는 동남아시아구계, 인도구계에 싸여 있다. 중국-일본구계는 다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미얀마·부탄·네팔·인도 북부의 고지(히말라야 산맥)를 지나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고지·우즈베키스탄 동부로 길게 펼쳐져 있다.

중국-일본구계의 특징은 온난다습하고 여름에 비교적 더우며 겨울에 비가 적은데 있다. 여기에 분포하는 식물은 종류가 대단히 많아서 히말라야, 중국,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하여 약 2만5천~3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식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① 지질시대에 있었던 氷河期가 북미 대륙이나 유럽만큼 혹독하지 않아서 氷河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② 제3기에 기원한 온대성 낙엽활엽수림이 잘 보존되었으며, ③ 서쪽의 히말라야 산맥을 제외하고 높은 산맥이 없었으므로 빙하기에 기후변동을 하는 동안 식물이 남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였고, ④ 빙하기가 끝난 뒤에 기후가 비교적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아서 식물이 잘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2) Good, R. 1974. *The geography of the flowering plants*. 4th ed. p. 557, Lonman,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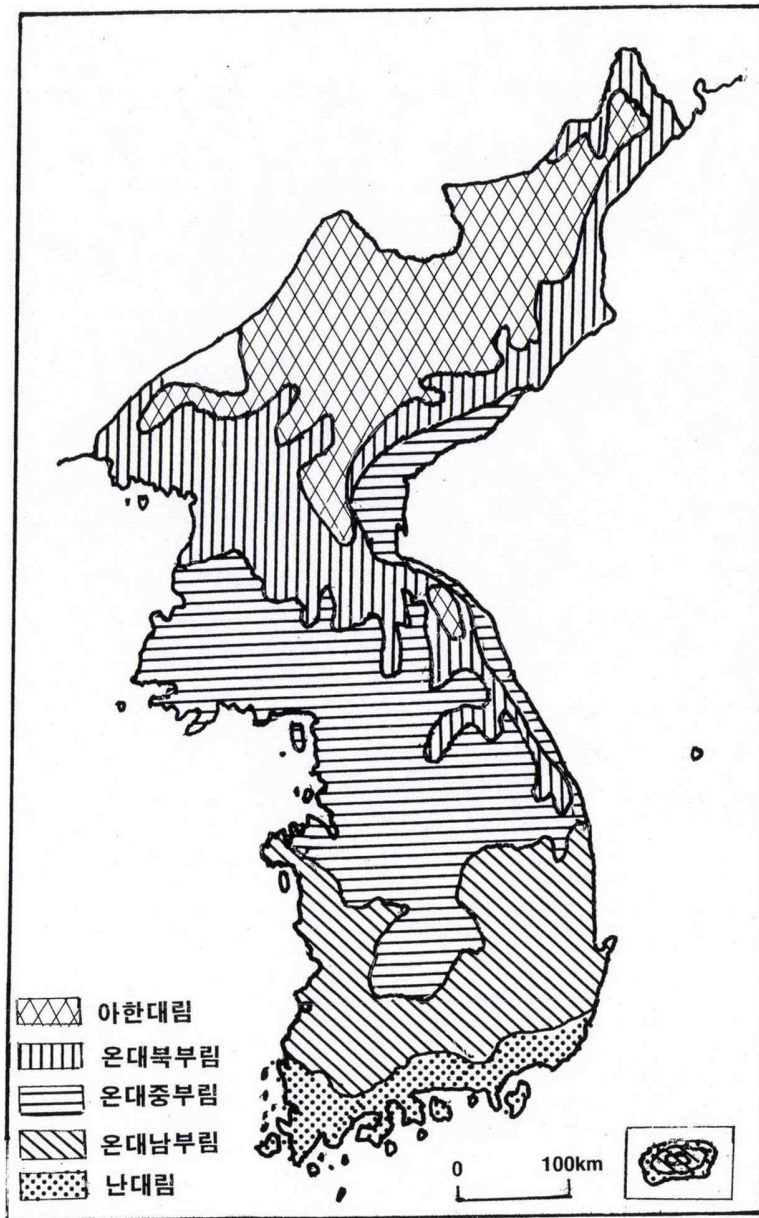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일본구계의 구분



중국-일본구계는 다시 온대의 식물을 주로 하는 溫帶亞區系와 난대의 식물을 주로 하는 暖帶亞區系로 나뉜다. 주로 낙엽활엽수가 자라는 온대아구계는 남해안을 제외한 한반도·중국동북부·일본열도에 걸쳐 있는데, 이 아구계는 다시 한국구, 만주구, 중국 화북구, 중국 남서구-히말라야-우즈베키스탄 동부, 일본온대구, 남사할린-북해도의 6구로 나뉜다. 상록활엽수가 주로 자라는 난대아구계는 한반도의 남해안과 일본의 남부를 포함하는 한일난대구와 중국 화중구로 나뉜다.

지질시대의 제3기가 끝날 무렵부터 지구는 몹시 추운 시대와 따뜻한 시대가 되풀이되었는데 식물은 추운 시대에 남쪽이나 저지로 밀려가고 따뜻한 시대에 북쪽이나 고산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한반도의 아고산이나 아한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유럽-시베리아구계의 식물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중국-일본구계의 식물들에 둘러싸여서 마치 바다 가운데 섬처럼 곳곳에 격리되어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설악산·지리산·한라산의 정상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는 추운 시대에 한반도에 널리 분포하였다가 기후가 따뜻해졌을 때 북쪽으로 후퇴하지 못하고 아고산에 남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림 6> 한반도의 삼림식생분포(任慶彬, 1968)



任慶彬(1968)은 한국구의 삼림식생을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자세한 삼림식생분포도로 나타내어 아한림대·온대북부림대·온대중부림대·온대남부림대 및 난대림의 5대림으로 구분하였다. 아한림대는 개마고원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내륙지역의 식생을 포함하고, 온대북부림대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의 내륙지역의 식생을 포함하며, 온대중부림대는 황해도, 경기도, 충청남·북도의 내륙과 강원도의 동해안지역을 포함하고, 온대남부림대는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서해안과 경상남·북도의 동해안을 포함하며 난대림대는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남해안과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를 포함한다.

한반도의 아한대림대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에 견디는 가문비나무·분비나무·종비나무·잎갈나무·풍산가문비·털가문비와 같은 침엽수와 사스래나무·새양버들·자작나무·배암나무와 같은 낙엽활엽수가 흔히 자라고, 또한 설령오리나무·민줄자작나무·부전자작나무·백두산자작·덤불자작·산종덩굴·함북종덩굴·산이스라지·상실버들·불레피불나무와 같은 한국 특산식물이 출현한다.

온대북부림대에는 만주곰솔·잣나무·진나무·주목 등의 침엽수, 박달나무·가래나무·난티나무·수수꽃다리·몽고뽕나무·암피불나무·매자잎버들 등의 낙엽활엽수, 지모와 같은 초본식물 그리고 땃강나무·참골담초·연밥갈매나무·개느삼·만리화 등의 한국 특산식물이 생육한다.

온대중부림대에는 신갈나무·졸참나무·서나무·쇠물푸레·굴피나무·비목나무와 같은 낙엽활엽수가 흔하고, 털오갈피·매자나무·산팽나무·검팽나무·노랑팽나무·줄땃강나무·오동나무·개수양버들·미선나무·금강인가목·모데미풀·금강초롱꽃과 같은 한국 특산식물이 출현한다.

난대림대에는 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녹나무·돈나무·붉가시나무·종가시나무·육박나무·후박나무 등의 상록활엽수가 흔히 자라고, 특히 제주도에는 담팔수·섬땃강나무·섬오갈피·고채목·좀갈매나무·솔비나무·제주산버들·제주진달래·둥근잎참빗살나무 등의 한국특산식물이 생육한다.

(3) 식생분포와 기후

한반도의 기후구(<그림 4>)와 삼림식생분포도(<그림 6>)를 비교하면 남해

안형과 난대림대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밖의 기후구와 식생대는 맞지 않는다. 그 원인은 기후구의 설정에 지형, 기온, 강수량, 해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등의 여러 요소가 고려되었지만 식생분포에는 이들 요소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데 있다.

건전한 삼림이 형성되려면 강수량이 70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는 전국토의 절반 이상이 800~1,000mm의 강수를 가지므로 삼림을 유지하기에 물이 충분하다. 그래서 삼림분포에 강수량이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식물들은 어느 수준 이상의 기온에서 생육할 뿐 그 수준 이하의 기온에서는 생육하지 못한다. 식물이 생육하는 최소한의 생리적 온도는 5℃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연중 월평균온도가 5℃ 이상의 달에 대하여 5℃ 이상의 온도를 모두 합한 값을 溫量指數(warmth index, WI)로 정한다(Kira, 1948). 그리고 상록활엽수림대의 북한계는 여름의 더운 기온보다 겨울의 추운 기온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래서 연중 5℃ 이하의 달에 대하여 5℃와의 차를 합산한 온도값을 寒冷指數(coldness index)로 정한다. 상록활엽수림대의 북한계는 한냉지수(CI) -10℃~-15℃의 등치선과 일치한다.

한국 지도에 온량지수(WI)가 각각 55℃, 55~85℃, 85~100℃, > 100℃·월 및 한냉지수(CI)가 <-10의 등치선을 그려보면, WI <55℃·월은 아한대림대, WI 55~85℃·월은 온대북부림대, WI 85~100℃·월은 온대중부림대, WI > 100℃·월은 온대남부림대 그리고 CI <-10은 난대림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표 2〉 한반도의 온량지수(또는 한량지수), 삼림식생분포 및 기후구의 관계

| 온량지수 및 한냉지수 | 삼림대 | 수종 | 기후구 |
|-------------|-------|-------------|---------|
| WI < 55° | 아한대림 | 아한대침엽수 | 개마고원기후구 |
| WI 55~85° | 온대북부림 | 냉온대낙엽활엽수 | 북부기후구 |
| WI 85~100° | 온대중부림 | 난온대낙엽활엽수(북) | 중부기후구 |
| WI > 100° | 온대남부림 | 난온대낙엽활엽수(남) | 남부기후구 |
| CI < -10 | 난대림 | 난온대상록활엽수 | 남해안기후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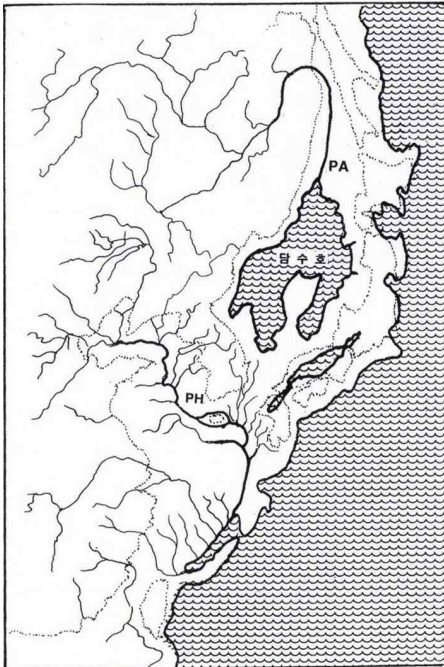
(Yim and Kira, 1975). 이처럼 삼림식생분포는 기온을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다. <표 2>는 온량지수(또는 한냉지수), 삼림식생분포 및 기후구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4) 동 물

(1) 동물분포

동물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지질시대에 일어났던 환경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는 제3기 말부터 氷河期와 間氷期가 3번 되풀이됨으로써 주변 바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해수면이 200m나 오르내렸다고 한다.

<그림 7> 지질시대의 제3기에 흘렀던 고황허강과 고아무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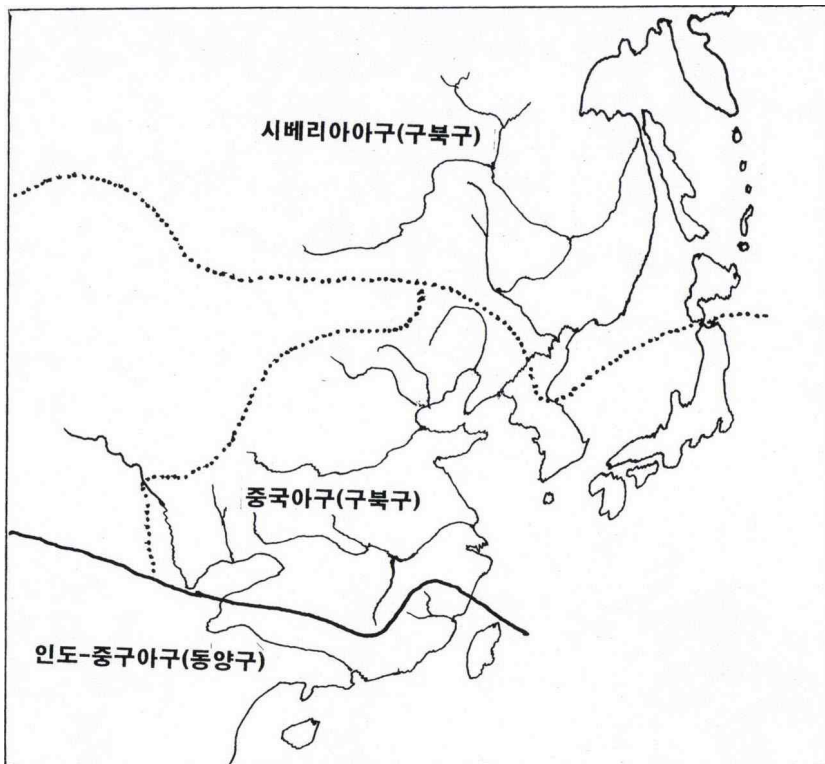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낮았으므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가 陸續되었고, 황해는 육지로 되며 한반도에서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강들은 모두 중국의 古黃河系의 하천 및 일본의 혼슈(本州)·큐슈(九州)의 하천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육지는 육상동물의 통로가 되고 하천은 담수어류의 통로가 되었다. 한편 현재의 동해는 과거의 고아무르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호로서 두만강과 그 남쪽의 동해 연안으로 흐르는 하천들이 연결되었다. 그래서 담수어류는 고아무르강과 동해로 흐르는

강들 사이에 서로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동물의 지리 분포 상 우리 나라의 포유동물은 舊北區 중에서 시베리아亞區와 中國亞區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아구에 속하는 지역은 개마고원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고지대를 포함하는 韓國東北小區(또는 한국고지소구)이고, 중국아구에 속하는 저지대는 韓國西南小區(또는 한국저지소구)이다.

한국동북소구에 서식하는 포유동물은 모두 시베리아 동부, 중국의 북만주, 러시아의 사할린·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의 것들과 관계가 깊어서 한국서남소구의 동물과 구별된다. 한국동북소구에는 소목에 속하는 대륙멧돼지·우

<그림 8> 동아시아의 동물지리분포(Mori, 1936)



수리사슴·백두산사슴, 식육목에 속하는 대륙목도리담비·검은담비(잘)·무산 쇠족제비, 토끼목에 속하는 우는토끼, 식충목에 속하는 회시무르고슴도치·뒤쥐·쇠뒤쥐·만포땃쥐·우스리땃쥐·야마시나땃쥐, 박쥐목에 속하는 아무르박쥐·긴꼬리수염박쥐·북방애기박쥐·검은토끼박쥐·불박뿔박쥐·쇠뿔박쥐 등이 서식한다.

한국서남소구에 서식하는 포유동물은 모두 남방형으로서 중국의 만주 남부, 중국의 화북·중부와 일본에 서식하는 것들과 관계가 깊다. 여기에는 소목에 속하는 멧돼지·대륙사슴·노루·고라니, 식육목에 속하는 산달·노란목도리담비·너구리, 토끼목에 속하는 멧토끼, 쥐목에 속하는 날다람쥐·쇠갈발쥐, 식충목에 속하는 고슴도치·제주땃쥐·울도땃쥐·토마스땃쥐·두더지, 박쥐목에 속하는 제주관박쥐·붉은박쥐·멧박쥐·문둥이박쥐·고바야시박쥐·긴가락박쥐 등이 서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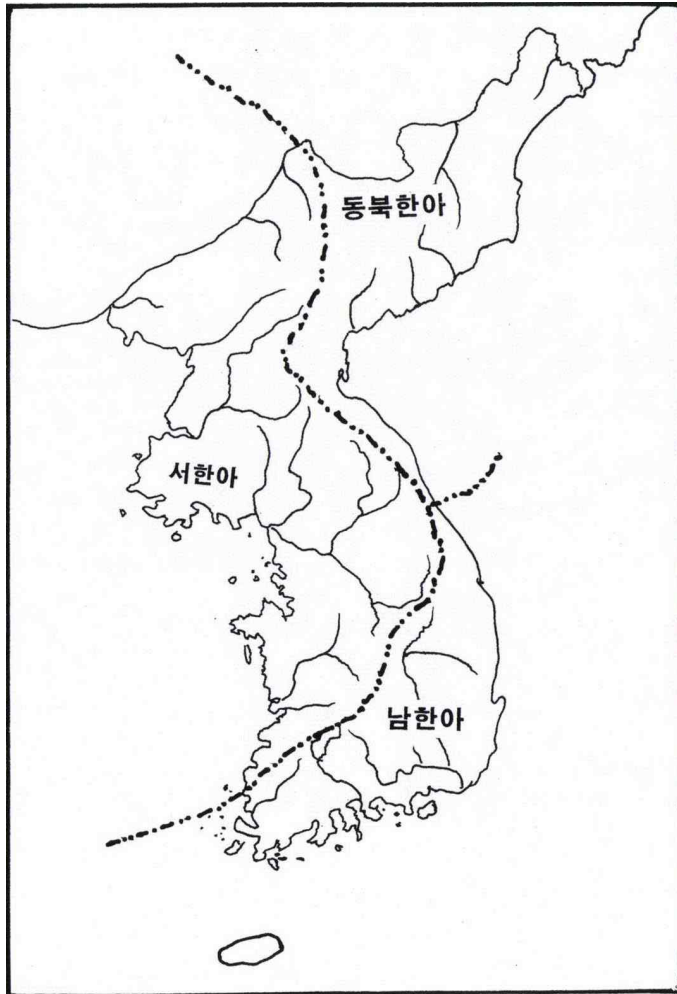
한국동북소구에 서식하는 조류는 북방형인 북평·들평·멧닭·새가락딱다구리·백두산오색딱다구리·개미잡이가 있고, 파충류는 북살모사·까치살모사가 있으며, 양서류는 북방산개구리가 있다. 이 중에서 까치살모사는 지리산·덕유산·오대산 및 설악산과 같은 고지대에서도 서식한다.

한국서남소구에 서식하는 조류에는 중국과의 공통종이 90%나 되어 중국아구의 특징을 보이는데 다만 이 소구에 서식하는 조류 중에서 울도방울새·뿔종다리·붉은배동고비·울도오색딱다구리·제주오색딱다구리·긴부리쇠딱다구리·크낙새·참수리·들평은 한국특산종이다. 이밖에 한국서남소구에는 파충류인 남생이·도마뱀부치·살모사와 양서류인 맹꽁이·조선산개구리·금개구리 등이 서식한다.

담수어류의 분포도 기본적으로 시베리아아구와 중국아구로 나뉘지만 민물에 갇혀서 사는 물고기인 만큼 분포의 기원과 지리적 장벽에 의하여 육상동물과 다른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

한반도의 담수어류 분포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낭림·태백·소백·노령산맥의 서부 분수령인 古黃河의 영향을 받았던 서부를 西韓亞지역으로, 그 남부를 南韓亞지역으로 그리고 낭림·태백산맥의 동부(강릉 남대천 이북)의 古아무르강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을 東北韓亞지역으로 나눈다.

〈그림 9〉 한반도 담수어류의 분포(김익수, 1997)



서한아지역은 압록강을 비롯하여 대동강·한강·금강 등 서해로 흐르는 수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서호납줄갱이·묵납자루·어름치·감돌고기·가는돌고기·배가사리·꾸구리·돌상어·금강모치·참중개·부안중개·미호중개·통가리 등의 한국 고유어류가 서식한다. 이들 고유어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종들은 중국과 남방의 어류로서 고향허에서 유래한 종들이다.

남한아지역은 태백·소백·노령산맥의 분수령에서 남해로 흐르는 영산강·섬진강·낙동강과 동해로 흐르는 삼척 오십천, 왕피천, 형산강 및 태화강의 수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점물개·모래주사·임실납자루·왕종개·동방종개·수수미꾸리·좁수수치·꼬치동자개와 같은 고유어종이 서식하고, 기름종개·줄종개·수수미꾸리·송사리·걱저기는 일본의 서남부와 공통의 어종이다. 이들은 모두 고향허와 동일 수계에서 유래된 종이다.

동북한아지역은 강릉 남대천 이북의 동해로 흐르는 하천으로 고아무르강의 영향을 받았던 수계이다. 여기에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은 버들가지와 강중개뿐이고, 버들개·동버들개·북방종개·청가시고기·두만가시고기는 만주 북부나 시베리아와 공통으로 서식하지만 고향허의 영향을 받았던 남방계의 메기목어류는 전혀 서식하지 않는다.³⁾

5) 생태계

(1) 삼림생태계

생태계는 생물군집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환경 사이에 밀접한 상호관계가 일어나며 그 속에서 物質循環과 에너지 流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系(system)이다. 생물군집은 생산자인 녹색식물, 소비자인 동물 및 분해자인 미생물로 구성되고, 비생물환경은 무기물(이산화탄소·산소·질소 등), 유기물(단백질·지질·탄수화물) 및 물·공기·기후요인으로 구성된다.

한반도의 주요 생태계는 삼림생태계, 하천생태계 및 간석지생태계이다. 이 밖에 농경생태계와 도시생태계가 있지만 이들은 순수한 자연생태계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삼림생태계에서 생산자인 삼림의 구조는 교목층·아교목층·관목층·초본층·선대층으로 多層構造를 이루며, 이들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점유하여 햇

3) 김익수, 《한국동식물도감》 제37권 동물편-담수어류-(1997, 문교부), 629쪽.

빛을 고루 받아 광합성을 함으로써 유기물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합성된 유기물은 1차소비자인 초식동물(곤충·박새·토끼·다람쥐 등)에 먹히고, 1차소비자는 1차육식동물(거미·개구리·족제비·살쥔이 등)에게 먹히며, 1차육식동물은 2차육식동물(뱀·새매·여우·너구리 등)에게 잡아먹혀서 마지막으로 정점 소비자(수리·늑대·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영양단계에 따라 유전한다. 식물과 동물이 죽은 사체는 분해자인 세균·곰팡이·버섯 등에 의하여 분해되어 물질순환이 일어난다.

그런데 한반도의 삼림은 벌목되어 농경지와 주택지·공장부지로 바뀌어 면적이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현존식생도 조림되어 單層構造로 바뀌었다. 그래서 소비자, 특히 정점 소비자의 서식지가 감소되어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본래 삼림생태계는 물질순환과 에너지 유전이 다른 생태계(예: 초원생태계)에 비하여 미약한데다 설상가상으로 면적이 좁혀지고 훼손됨으로써 더욱 미약하게 되었다.

(2) 하천생태계

하천생태계에는 압록강·대동강·한강·금강·낙동강 등 긴 하천뿐만 아니라 짧은 하천들도 포함된다. 하천은 계곡의 계류, 상류, 중류, 하류 및 하구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각 생육환경이 다르므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하천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이 초식동물(동물플랑크톤·수서곤충·송사리 등)에 먹히고, 초식동물이 1차육식동물(붕어·잉어)에 잡아먹히며, 1차육식동물이 2차육식동물(메기·가물치 등)에게 먹히는 食物連鎖로 이어진다. 하천의 계류나 상류는 수온이 낮아서 식물플랑크톤이 번식하지 못하므로 낙엽을 초식성 수서곤충인 날도래류가 먹고, 이것을 육식성 곤충이나 물고기가 먹는 식물연쇄도 이루어진다.

하천생태계는 현재 물이 화학적으로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하천 정비사업으로 直江化됨으로써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여울과 깊게 고이는 소가 없어졌고, 淤와 댐을 쌓음으로써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간석지생태계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干潟地가 펼쳐져 있다. 간석지는 하루에 두 번씩 해수면 밖으로 노출되었다가 잠긴다. 따라서 잠기는 동안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혐기성)이 되고 노출되는 동안은 온도와 염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이러한 혹독한 생태계에 적응하여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간석지는 육지에서 흘러내리거나 바다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특히 황박테리아에 의한 황순환이 활발하다.

간석지생태계의 생산자는 해수 속의 식물플랑크톤과 갯벌 표면에 붙어사는 부착조류(주로 규조류)이다. 간석지에 서식하는 초식동물인 게는 간조가 되면 구멍에서 나와 갯벌 표면의 부착조류를 긁어서 걸러 먹고, 게는 1차육식동물인 육식성 조류에게 잡아먹힌다. 그리고 간석지에서는 죽은 생물체를 먹는 부식성 식물연쇄도 활발히 일어난다. 보존된 간석지생태계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간석지생태계에 독을 쌓아 干拓함으로써 면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6) 생물상

(1) 식물상

한반도에서 자라는 관속식물은 솔잎난亞門의 솔잎난綱에 속하는 솔잎난目, 석송아문에 속하는 석송목·부처손목·물부추목, 속새아문의 속새강에 속하는 속새목, 양치식물아문의 고사리강에 하는 고사리삼목·고사리목, 나자식물강에 속하는 소철목·은행목·구과목, 피자식물강의 단자엽식물아강에 속하는 부들목·소생식물목·벼목·천남성목·분질배유목·백합목·생강목·난초목, 쌍자엽식물아강의 이판화군에 속하는 후추목·버드나무목·소귀나무목·가래나무목·참나무목·쐐기풀목·단향목·쥐방울덩굴목·마디풀목·중심자목·미나리아재비목·양귀비목·끈끈이귀개목·장미목·쥐손이풀목·무환자나무목·갈매나무목·아욱목·측막태좌목·선인장목·도금양목·산형화목, 합판화군에 속하는 진달래목·앵초목·감나무목·용담목·통화식물목·

질경이목·꼭두서니목·박목·초롱꽃목이 있다.⁴⁾

한반도에 생육하는 관속식물의 종류는 양치식물이 249종류, 나자식물이 64종류, 피자식물의 단자엽식물이 815종류 그리고 쌍자엽식물이 1,649종류로 모두 3,777종류가 알려져 있다(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96).

우리 나라에서 생육하는 고유식물은 미선나무屬, 개느삼속, 금강초롱꽃속, 모데미풀속, 부전바디속 및 금강인가목속이며, 특산식물은 411종류이고 이중에서 목본식물이 154종류, 초본식물이 257종류이다.⁵⁾

한반도에서 생육하는 선태식물은 蘇綱·苔綱 및 뿔이끼강으로 나뉜다. 선강에는 물이끼목·네삭치이끼목·담배대이끼목·솔이끼목·봉황이끼목·꼬리이끼목·침꼬마이끼목·고깔바위이끼목·표주박이끼목·참이끼목·선주름이끼목·방울이끼목·기름종이이끼목·털깃털이끼목이 속하고, 태강에는 망울이끼목·리본이끼목·우산이끼목이 속하며, 뿔이끼강에는 뿔이끼목 하나가 속한다. 선태식물 중에서 선강은 208종류, 태강은 76종류 그리고 뿔이끼강은 2종류로 모두 286종류가 생육한다.⁶⁾

우리 나라에 출현하는 고등균류는 점균門과 진정균문으로 나뉘는데 점균문에는 산호점균목·구슬점균목·갈적색털점균목·망사점균목·자주색솔점균목이 속하고, 진정균문의 핵균강에 맥각균목·콩버섯목이 속하며, 반균강에 주발버섯목·작은입버섯목·고무버섯목·덩이버섯목이 속하며, 동포자균강에 갸부기병균목이 속하고, 균심강에 목이목·고약병균목·흰목이목·붉은목이목·떡병균목·가지잘룩병균목·민주름버섯목·주름버섯목이 속하며, 복균강에 알버섯목·어리알버섯목·연지버섯목·찾잔버섯목·말불버섯목·말뚝버섯목이 속한다. 한국산 고등균류는 모두 1,128종류에 이른다. 이중에서 맥가균, 구름버섯과 같이 약으로 쓰이는 것과 송이나 표고와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있다.⁷⁾

4) 李昌福, 《大韓植物圖鑑》(향문사, 1980), 990쪽.

5) 李昌福, 〈우리 나라 稀貴植物의 分布現況과 保存對策〉(《자연보존》 59, 1987), 15~21쪽.

6) 최두문, 《한국동식물도감》 제24권 식물편-선태류-(문교부, 1980), 790쪽.

7)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한국생물종목록》(1996), 540쪽.

(2) 동물상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은 소목·고래목·식육목·토끼목·쥐목·식충목·박쥐목으로 나뉘고, 모두 100종류가 서식한다. 이 중에서 박쥐목이 26종류로 가장 많고 식육목이 24종류, 쥐목이 16종류이며 토끼목은 멧토끼와 우는토끼 2종뿐이다. 한국 특산종은 멧돼지·고라니·오소리·노란목도리담비·산달·족제비·제주족제비·여우·너구리·우는토끼·멧토끼·청서·날다람쥐·하늘다람쥐·대륙박쥐·고슴도치·뒤쥐·제주땃쥐·울도땃쥐·야마시나땃쥐·두더지·관박쥐·제주관박쥐·문둥이박쥐·고바야시박쥐·뿔박쥐이다.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조류는 아비목·논병아리목·슴새목·사다새목·황새목·기러기목·매목·닭목·두루미목·도요목·비둘기목·두견이목·올빼미목·속독새목·칼새목·파랑새목·딱다구리목·참새목의 18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서 참새목이 25과 283종류로 가장 크고 다음이 도요목으로 9과 70종류이며, 기러기목이 38종류, 매목 27종류, 칼새목 2종류, 속독새목이 1종류의 순이다. 한국산 조류는 모두 513종류인데 이 중에서 텃새는 48종류이고 철새는 266종류이며 나머지 199종류는 迷鳥이다.⁸⁾

파충류는 거북목과 뱀목으로 나뉜다. 거북목에는 바다에서 사는 장수거북과 바다거북이, 민물에서 사는 남생이와 자라가 있다. 뱀목에 속하는 도마뱀류는 9종류가 서식하는데 이 중에서 장수도마뱀·장지뱀·올디장지뱀은 한국 특산종이다. 뱀목의 뱀과에는 유혈목이·대륙유혈목이·비바리뱀·구렁이·줄꼬리뱀·누룩뱀·능구렁이·실뱀·무자치의 9종류가 있고, 살모사과에는 살모사·북살모사·까치살모사·쇠살모사의 4종류가 있으며, 바다뱀과에는 바다뱀과 먹대가리바다뱀의 2종류가 있어 모두 15종류가 서식한다.

한반도의 양서류는 도롱뇽목과 개구리목으로 나뉜다. 도롱뇽목에는 도롱뇽·꼬리치레도롱뇽·네발까락도롱뇽이 속하고, 개구리목에는 무당개구리·두꺼비·물두꺼비·청개구리·맹꽁이·참개구리·금개구리·북방산개구리·산개구리·아무르산개구리·옴개구리가 속한다.

8) 원병오,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문교부, 1981), 1126쪽.

한반도에 서식하는 담수어류는 칠성장어목·철갑상어목·뱀장어목·청어목·잉어목·메기목·연어목·송사리목·큰가시고기목·드렁허리목·횃대목·복어목·농어목의 13목이고, 모두 155종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한국 고유어류는 잉어목의 각시붕어·서호납줄갱이·줄납자루·목납자루·칼납자루·임실납자루·가시납자루·어름치·중고기·참중고기·감돌고기·가는돌고기·쉬리·참물개·물개·긴물개·검물개·왜매치·모래주사·돌마자·배가사리·뿔경모치·꾸구리·돌상어·회수마자·압록자가사리·버들가지·금강모치·새코미꾸리·참종개·부안종개·미호종개·왕종개·남방종개·동방종개·수수미꾸리·좁수수치의 37종류와 메기목의 꼬치동자개·미유기·통가리·통사리·자가사리의 5종류로 모두 42종류이다.⁹⁾

〈金俊鎬〉

2. 지리학적 특성

1)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고대에는 만주의 넓은 벌판도 우리 선조들의 활동무대였지만 지금은 산이 많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섬에 국토가 한정되어 있다. 한반도는 아시아대륙의 동쪽 중심부에서 태평양 연변의 일본열도를 향해 남쪽으로 뻗어 내렸다. 우리는 백두산과 여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 및 두만강을 한반도와 아시아대륙의 경계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¹⁾ 우리의 국토가 한반도로 정해진 것은 조선 초였다. 한반도의 모양은 대륙으로 뛰어오르려고 웅크린 호랑이에 비유된다. 영일만의 장기반도는 호랑이의 꼬리에 해

9) 김익수, 《한국동식물도감》 제37권 동물편-담수어류-(1997, 문교부), 629쪽.

1) 1933년에 우리 나라를 광범하게 답사하고 1945년에 KOREA를 떠난 독일 지리학자 H. Lautensach는 대륙과의 지질·지형적 관계를 고려하여 한반도가 서한만과 영흥만 사이의 홀쭉한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당하며, 1903년에 세워진 이곳의 등대는 ‘虎尾燈臺’라고 불린다.

우리 나라의 면적은 22.1만㎢이다. 국토가 넓지 않지만 그리 좁은 것도 아니다. 우리 나라와 면적이 비슷한 나라로는 영국·루마니아·시리아·우루과이·뉴질랜드 등이 있다. 경도와 위도의 범위는 동경 124°~132°, 북위 33°~43°이다. 섬을 제외한 반도부의 경우 남북간의 최장거리는 함북 온성에서 전남 해남까지 1,012km, 동서간의 최단거리는 서한만에서 영흥만까지 164km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대륙과 접한 부분은 이들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기 때문에 약 1,300km에 이르는데, 거의 전부 만주와 접해 있고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한 부분은 두만강 하류의 17km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동남단에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의 쓰시마섬(對馬島)까지는 약 50km, 큐슈(九州)까지는 약 200km이다. 부산의 태종대에서는 쓰시마섬이 보인다.

우리 나라는 중위도에 자리하여 기후가 대체로 온난하다. 4계절이 뚜렷한 것도 우리 나라 기후의 두드러진 특색이다. 우리 나라와 위도가 비슷한 온대 지방에 속한 나라로는 일본·터키·이탈리아·스페인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여름과 겨울간의 기온차가 크며, 따라서 봄과 가을이 확연하게 구별된다. 기후의 이러한 특색은 아시아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한 우리 나라의 위치에 기인한다. 한민족은 계절의 변화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다채로운 歲時風俗을 이어가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한반도는 아시아대륙과 일본열도를 잇는 陸橋의 구실을 해왔다. 이와 같은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민족은 일찍부터 중국에서 각종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일본으로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쪽에서 압력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았다. 근세의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각각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우리 나라를 강점했다. 1945년의 광복 후에는 다시 외세에 의해 북위 38°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단되는 비운을 맞았고, 곧 6·25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1953년의 휴전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대치하게 되었다. 공산권이 붕괴된 후에도 남한과 북한간에는 긴장이 계속되다가 21세기에 들어서야 화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 왔다. 한반도는 中原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산이 많다. 한민족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올 수 있었던 까닭은 일찍이 이러한 한반도를 차지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한민족의 정체성과 잠재력은 한반도에서 형성되었다. 남한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西洋文物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지만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해양으로 진출, 세계 유수의 교역대국으로 성장했다. 짧은 기간에 이룩한 이와 같은 성장은 흔히 기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지리적 위치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2) 지 질

한반도의 지질은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열도와 전혀 다르고, 중국과 시베리아의 그것에 가깝다. 한반도는 지표의 약 절반이 始生代와 原生代の 變成岩類로 덮여 있으며, 지반이 안정되어 있다. 지진이 가끔 발생하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한반도의 지질적인 기반은 함북陸塊·평북육괴·경기육괴·소백산육괴로 이루어졌다(〈그림 1〉). 이들 육괴는 약 6억년 전부터 시작된 古生代 이후 심한 지각변동을 겪지 않고 육지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들 육괴에는 연대가 매우 오랜 시생대와 원생대의 변성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변성암 중에서는 연대가 27~29억 년 전인 것도 발견된다.

육괴는 일련의 堆積盆地로 분리되어 있다. 퇴적분지는 고생대 이후 지반이 침강하여 퇴적암이 쌓이고 이러한 곳이 다시 융기하여 육지가 된 부분으로서 평안분지·옥천조산대·경상분지·두만분지 등이 중요하다(〈그림 1〉). 퇴적분지에서 형성된 堆積岩은 국토의 약 20%를 덮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퇴적암은 고생대 초에 海成層으로 쌓인 朝鮮累層群과 고생대 말~중생대 초에 陸成層으로 쌓인 平安累層群이다. 조선누층군은 평안남도과 황해도에 걸친 平安盆地, 강원도 남동부와 이에 인접한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의 일

〈그림 1〉

한반도의 지체구조



부 지역에 걸친 沃川造山帶에 분포하는데, 대단히 두꺼운 석회암층을 포함하고 있다. 삼척·동해·영월·단양·문경의 시멘트공업은 이 석회암층을 바탕으로 발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석회암층에는 석회동굴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평안누층군은 조선누층군에 인접하여 다소 좁게 분포하는데, 육성층으로 쌓여 지하자원으로 중요한 無煙炭을 부존하고 있다. 평안누층군의 분포지역은 평안남도 북부와 평양 부근, 황해도 남동부, 강원도 남동부, 충청북도 북동부, 전라남도 중부 등이다. 무연탄은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말경까지 활발하게 채굴되던 삼척·영월·정선·단양·문경의 무연탄도 평안누층군의 것이다.

慶尙累層群은 2억 3천만 년 전부터 6천 3백만 년 전까지 계속된 中生代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의 백악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 지층이 쌓인 퇴적분지를 慶尙盆地라고 부른다. 경상

〈표 1〉 한반도의 지질계통

| 지질시대 | | 지질계통 | 지각변동, 화성활동, 기타 |
|--------|--------|---------------------------|-------------------------------|
| 신생대 | 제 4 기 | 제4기층 | 화산활동(현무암) ~~불국사변동·불국사화강암~~ |
| | 제 3 기 | 제3기층 | |
| 중생대 | 백 악 기 | 경상누층군 | ~~대보조산운동·대보화강암~~ |
| | 쥐 라 기 | 대동누층군 | ~~~~~송림변동~~~~~ |
| | 트라이아스기 | 평안누층군 | ~~~~~해침~~~~~ |
| 고생대 | 페 림 기 | | |
| | 석 탄 기 | (대결층) | ~~~~~조륙운동~~~~~ |
| | 데 본 기 | | |
| | 사일루리아기 | | |
| | 오르도비스기 | 조선누층군 | ~~~~~해침~~~~~ |
| | 캄브리아기 | | |
| 선캄브리아기 | 원 생 대 | 연천층군 춘천층군 소백산변성암복합체 | 광역변성작용(화강편마암) |
| | 시 생 대 | 경기변성암복합체 | |

누층군도 육성층으로 쌓였으나 이렇다 할 지하자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신생대 제3기층의 분포는 한정되어 있으나 함경북도 아오지 중심의 두만분지에서는 갈탄이 채굴된다.

火成岩類는 국토의 약 30%에 걸쳐 분포한다. 화강암은 가장 널리 분포하는 화성암으로 국토의 약 20%를 덮고 있다. 화강암은 균열없이 덩어리로 산출되는 데다가 석질이 단단하고 색이 밝아 건축재료로는 물론 각종 석물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석탑과 석불은 거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화강암은 중생대 쥐라기 말에 관입한 대보화강암과 백악기 말에 관입한 불국사화강암으로 나뉘는데, 화강암의 분포지역에는 북한산·금강산·설악산·월악산과 같이 암석경관이 수려한 石山이 형성되어 있다. 석산은 오대산이나 지리산과 같이 변성암에 형성된 土山과 대조된다. 토산에는 삼림이 우거진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백악기 말에 분출한 火山岩이 곳곳에 분포한다. 정읍의 내장산, 고창의 선운산, 의성의 금성산 등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졌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신생대 제사기의 플라이스토세에 형성되었다. 플라이스토세는 빙기와 간빙기가 여러번 반복되었던 2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의 지질시대이다. 백두산 주변, 강원도의 평강·철원, 황해도의 신계·곡산에서는 플라이스토세에 분출한 현무암의 용암대지를 볼 수 있다.

3) 지 형

(1) 산 지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산은 예로부터 신성시되어 왔다. 산의 이름 중에는 白·神·天·皇·王·龍·鳳과 같은 글자가 들어간 것이 많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는 삼국시대 이래 많은 사찰이 들어섰다. 그래서 金剛·毘盧·般若·曹溪·普賢·兜率·芙蓉·蓮花·國師와 같은 불교 계통의 산 이름도 적지 않게 되었다. 사찰의 이름 앞에는 ‘오대산 월정사,’ ‘가야산 해인사,’ ‘지리산 실상사,’ ‘속리산 범주사’와 같이 산 이름이 붙어 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지만 신생대에 들어와 격렬한 지각변동을 겪지 않아 높은 산은 많지 않다. 한반도와 만주를 통틀어 가장 높은 白頭(2,744m)도 해발고도가 3,000m에 미치지 못한다. 높은 산은 한반도의 지형적 골격을 이루고 있는 태백·소백·낭림·함경·마천령 등의 산맥을 따라 분포한다. 특히 함경산맥과 낭림산맥을 따라서는 해발 2,000m 이상의 봉우리들이 솟아 있으며, 이 두 산맥으로 둘러싸인 蓋馬高原은 해발고도가 1,500m 내외로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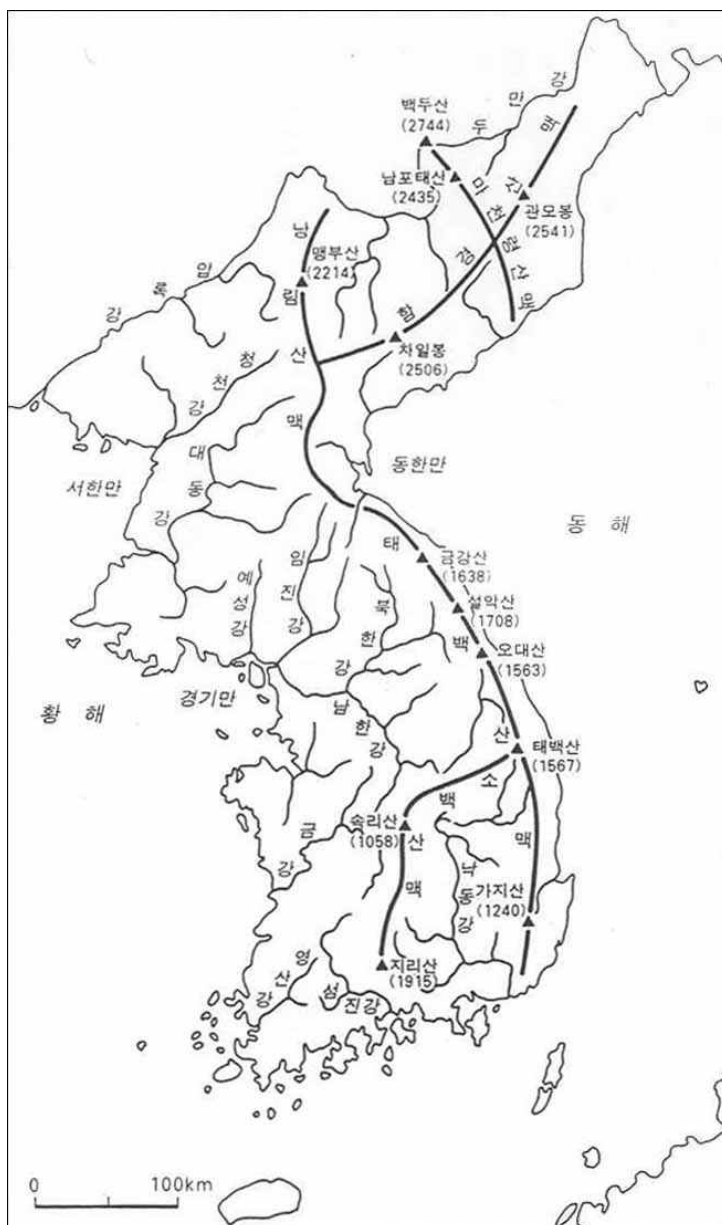
한반도는 태백산맥 및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낭림산맥과 함경산맥을 중심으로 단면이 비대칭적인 두 개의 傾動地形으로 이루어졌다.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은 동해에 다가서 있어 동해쪽에서는 높은 산맥으로 보이지만, 정상에서 반대쪽으로는 고원이나 험준한 산지가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이들 경동지형은 신생대 중기 이후에 한반도가 동해쪽에 치우쳐 서서히 융기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소백산맥도 지반의 융기에 의해 형성되어 줄기가 뚜렷하다.

개마고원에 광활하게, 대관령 부근의 황계지역에 좁게 나타나는 고원지형은 高位平坦面이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지형은 한반도가 융기하기 이전에 상당히 평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황계지역 서쪽에서는 고위평탄면이 침식을 많이 받아 산정부에만 더러 남아 있으며, 서해안에 가까울수록 고도가 낮아진다. 광주의 南漢山城은 해발 500m 내외의 고위평탄면을 이용하여 쌓은 대표적인 산성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태백산맥과 낭림산맥을 한반도의 등뼈에 비유하여 흔히 脊梁山脈이라고 부른다. 중·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산맥지도에는 차령·광주·노령·마식령·멸악·언진 등의 산맥이 척량산맥에서 서쪽으로 마치 갈비뼈가 뻗어내린 것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산맥은 고위평탄면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하천의 유역분지들 사이에 형성된 분수계에 불과하다. 갈비뼈 모양의 이들 산맥은 20세기 초에 일본 지질학자(小藤文次郎)에 의해 잘못 설정된 들로서 줄기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²⁾ 지리학과 지질학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산맥이란 분수계가 아니라 지반운동에 의해 형성된 연속적인 산지를

2) 權赫在, <韓國의 山脈> (《대한지리학회지》 36, 2000), 389~400쪽.

〈그림 2〉 한반도의 산맥과 하천



가리킨다. 조선 후기의 〈山徑表〉에 기재된 크고 작은 산줄기는 분수계를 보여주는 것인데,³⁾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白頭大幹은 마천령·함경·낭림·태백·소백 등의 산맥을 잇는 한편 압록강과 두만강을 비롯하여 한강·금강·낙동강 등의 유역분지를 가르고 있어 모든 산줄기 중에서 가장 길다(〈그림 2〉).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고대에도 있었던 것 같고,⁴⁾ 오늘날에는 자연보존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남한강 연변의 충주·여주·이천 등지에는 해발 100m 이하 또는 해발 50m 내외의 구릉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전라북도 김제와 같은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구릉지의 해발고도가 25m 내외로 낮아진다. 산도 아니고 평야도 아닌 이러한 구릉지, 즉 野山은 화강암의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원래 용기량이 적었던 고위평탄면의 주변부에 형성된 지형이다. 야산은 고도가 낮고 지면의 경사가 완만해도 토양이 척박해서 대부분 林野로 남아 있다가 1960년대부터 이른바 ‘야산개발’이 추진되면서 적극 농경지로 개간되어 왔다.⁵⁾

식량문제의 해결이 절박했던 과거에는 산이 많고 평야가 좁아 안타까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산이 많아 국토 전체가 공원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도 대부분의 지방도시와 같이 산으로 둘러싸였다. 都城을 쌓는 데 이용한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은 內四山, 그 바깥의 북한산·관악산·용마산·덕양산은 外四山이라고 불리웠다. 이 중에서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만큼 강도 많다. 우리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가 錦繡江山임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산은 골짜기를 만들고 토석을 파내며 도로를 내는 등 각종 개발로 망가지고 있고, 하천은 모래·자갈의 채굴과 댐·하구둑의 건설로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이 심해서 물고기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3) 楊普景, 〈조선시대의 자연인식체계〉(《한국사시민강좌》 14, 一潮閣, 1994), 70~97쪽.

4) 權赫在, 《韓國地理(地方編)》(法文社, 1995), 339쪽.

5) 權赫在, 〈驪州地方의 地形과 土地利用〉(《교육논총》 28, 고려대, 1998), 83~105쪽.

(2) 하천과 평야

가. 하 천

압록강·두만강·한강·낙동강·대동강·금강은 길이가 400km를 넘는 우리 나라의 6대 하천이다. 두만강을 제외한 이들 하천은 서해와 남해로 흘러든다. 하천은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중앙정부(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국가하천, 도에서 관할하는 지방1급하천, 시·군에서 관할하는 지방2급하천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과거의 準用河川은 지방2급하천으로 그 뜻은 河川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라는 것이었다. 하천은 오늘날 수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우리 나라의 하천은 유량의 변동이 심하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때는 큰 홍수가 일어나는 반면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량이 극도로 줄어들어 농업용수의 확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유량의 변동이 심한 까닭은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는 데다가 세계의 큰 하천들과는 달리 유역면적이 좁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대규모의 다목적댐이 곳곳에 건설되어 하천의 流況이 다소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금강·영산강에 하구둑이 건설되고, 안성천·삽교천·동진강·만경강 등에도 防潮堤와 制水門이 설치되어 수자원의 이용률이 높아졌다.

서해와 남해로 유입하는 하천들은 潮汐의 영향을 받는다. 하구둑이 건설되기 전에 낙동강은 삼랑진까지, 금강은 부여까지 강물이 밀물에 밀려 역류했다. 한강에서는 김포수중보가 건설된 후에도 난지도까지 강물이 역류하는데, 그 이전에는 마포 상류의 서빙고까지 조석의 영향이 미쳤다. 마포는 한강의 큰 河港이었다. 하천 하류의 感潮區間에서는 밀물과 썰물에 맞추어 어선과 그 밖의 선박들이 오르내렸다.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큰 강은 內陸水路로 매우 중요했다. 한강은 서울, 대동강은 평양, 금강은 부여와 공주의 젖줄이었다. 강의 중상류에서는 주로 여름철의 증수기에 배가 다녔는데, 배가 올라갈 수 있었던 소강종점이 한강은 영월, 낙동강은 안동, 금강은 부강, 섬진강은 구례, 대동강은 덕천, 압록강은 혜산이었다. 강은 상류지역의 산에서 베어낸 나무를 뗏목으로 엮어 실어내는 데도 이용되었다. 한편 강은 나룻배를 타야 건널 수 있었

기 때문에 육상교통에는 큰 장애물이었고, 주요 나루터에는 渡津聚落이 발달되어 있었다. 오늘날 서울에서는 나룻배 대신 20여 개의 다리가 한강의 북쪽과 남쪽 지역을 이어주고 있다.

나. 평야

김해·나주·김제·만경·논산·예당·평택·김포·평양·재령·안주·박천·용천 등의 넓은 평야는 서해나 남해로 유입하는 큰 하천을 끼고 그 하류에 발달되어 있다. 이들 평야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들’이라고 부르는 지형, 즉 하천의 토사가 쌓여 이루어졌고 거의 논으로만 이용되는 沖積地 또는 氾濫原이다. 평야의 충적지는 모두 구릉지나 산지로 둘러싸였다. 구릉지도 고도가 낮고 지면의 경사가 완만하면 평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형은 기반암의 풍화토로 덮여 있고, 논·밭·과수원·목장·임야 등 토지이용이 다양하여 논만 분포하는 충적지, 즉 들과는 경관이 사뭇 다르다. 구릉지의 논은 대개 ‘고래실’에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 하류의 충적지는 약 4,000년 전에 後氷期の 해면이 현재의 높이로 상승함에 따라 最後氷期の 침식곡에 하천의 토사가 쌓임으로써 형성된 지형이다. 이러한 충적지는 현재의 해면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해발고도가 10m 내외로 아주 낮은 것이 특색이다. 동진강 하류의 김제평야나 만경강 하류의 만경평야와 같이 바다에 면한 평야는 일제강점기 이후 갯벌의 간척에 의해 넓혀져 왔다. 방조제가 바다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평야는 해발고도가 5m 내외에 불과하다.

20세기 초까지도 벼농사에 비교적 적합했던 곳은 작은 하천의 연변이나 구릉지의 고래실이었다. 오늘날 곡창으로 중요한 여러 평야는 수해와 가뭄이 극심하여 생산성이 아주 낮았다. 평야의 개발은 일제의 産米増殖計劃(1920~1933)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제는 이때 수많은 水利組合을 설립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저수지를 곳곳에 축조했다. 주변에 저수지를 축조할 만한 골짜기가 없는 평야에서는 강물을 퍼올리는 揚水場을 설치하여 저수지를 대신하도록 했다. 홍수방지를 위한 근대적 제방의 축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河川改修事業도 이때 병행되었다. 군산·김제·보성 등지에서는 대규모

의 간척사업이 또한 추진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수리조합 중에서 평남·연백·동진·전북과 같이 면적이 2만 정보를 넘거나 이에 가까울 정도로 넓은 것들은 생산성이 아주 낮았던 주요 평야의 충적지를 대상으로 설립된 수리조합이었다.

평야의 개발은 1970년대 이후 大單位 農業開發計劃에 의해 또 한차례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영산강하구둑·아산방조제·삼교방조제·대호방조제 등은 간척사업이 병행되기도 했으나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건설한 수리시설이다. 오늘날 하천 하류의 넓은 평야는 가뭄을 거의 겪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는 속수무책이다.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침수된 논·밭물을 짧은 시간 안에 퍼내야 하는데, 넓은 평야에 그러한 용량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해안과 해양

가. 해안

해안선이 길고 동해와 서해의 海況이 크게 달라서 우리 나라에는 각종 해안지형이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다. 해안지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砂濱이다. 파랑이 모래를 해안으로 밀어올려 쌓아 형성한 지형인 사빈은 오늘날 해수욕장으로 널리 이용된다. 강원도의 영동지방에는 해수욕장이 특히 많다.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대부분 모래가 풍부하다. 태백산맥에서 흘러내리는 하천들이 홍수시에 다량의 토사를 바다로 유출하기 때문이다. 동해안은 하천이 모래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다가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고 파랑의 작용이 활발해서 사빈이 발달하기에 알맞다.

서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파랑의 작용이 동해안처럼 활발하지 않지만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사빈이 적지 않다. 서해안의 해수욕장은 泰安海岸國立公園에 속한 태안반도와 안면도에 많다. 태안반도와 안면도는 바다로 돌출하여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큰 파랑을 직접 받아들인다. 해수욕장에서는 모래가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서해안의 사빈은 모래의 공급이 부족하여 침식을 받아 후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는 시멘트구조물로 된 防護壁(sea wall)을 설치하여 사빈의 침식을 막고 있다. 서해안의 사빈들은

대개 구름으로 둘러싸인 작은 灣入에 초승달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고, 사빈의 모래는 주로 연안의 침식물질로 이루어졌다. 밀물 때 물에 잠기고 썰물 때 물 위로 드러나는 구간, 즉 潮間帶가 넓게 나타나는 것도 두드러진 특색이다. 남해안은 섬이 많아 외해의 큰 파랑이 육지부의 해안까지 밀려오는 곳이 흔치 않다. 큰 해수욕장을 볼 수 있는 곳은 경상남도의 남해도와 같은 섬이다.

사빈의 뒤에는 海岸砂丘가 발달한다. 사빈에서 바람에 불려온 모래로 이루어진 지형인 해안사구는 소나무나 砂草로 덮여 있다. 관동팔경에 속한 평해의 月松亭이 해안사구의 소나무숲에 세워져 있다. 겨울철에 강력한 북서계절풍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태안반도와 안면도에는 사빈에 비해 대단히 크고 넓은 해안사구가 곳곳에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규사와 골재의 채굴로 해안사구가 극심하게 파괴되어 왔다. 해안사구는 사빈과 함께 보존해야 할 지형인데도 거의 전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황해도 장연군의 夢金浦는 해안사구로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곳이다.

서해안은 조차가 매우 크고, 갯벌(간석지)의 발달이 세계적이다. 한강·금강·임진강·예성강·대동강 등이 유출하는 토사 중에서 빨과 같은 미립 퇴적물은 潮流에 실려 멀리까지 운반되면서 수면이 잔잔한 해안에 쌓여 갯벌을 형성한다. 갯벌은 퇴적물이 쌓임에 따라 위로 성장하는 동시에 바다쪽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大潮時에만 바닷물에 잠길 정도로 지면이 높아지면 ‘나문재’와 같은 염생식물이 정착하여 鹽生濕地가 된다. 염생습지는 예로부터 흙으로 방조제를 쌓고 조금씩 간척하여 논으로 이용해 왔다.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염생습지가 광범하게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간척사업이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넓은 염생습지는 모두 없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천수만·시화지구·영암만·새만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간척사업이 초대형화하여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간척사업들이 사회적으로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농업용수의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간척지가 염전으로 개발·이용되어 왔다.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던 천일제염업은 1990년대에 들어

서 국내의 소금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쇠퇴하고 대부분의 염전은 폐기되거나 대하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해안에는 이밖에 해안단구·해식에·해식동·석호 등 각종 해안지형이 절경을 이루며 산재한다. 鄭澈(謙齋)의 <叢石亭>에 묘사된 강원도 통천의 거대한 기둥바위들은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분출한 현무암의 柱狀節理를 따라 형성된 것이다. 사빈과 해안사구의 뒤에 나타나는 강릉의 鏡浦나 고성 三日浦와 같은 석호도 일찍부터 절경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渴湖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해안에 많다.

나. 해 양

東海는 여러 면에서 西海나 南海와 상당히 다르다. 동해는 일본열도와 사할린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로서 대륙붕이 좁고 평균수심이 약 1,700m에 이르며, 태평양으로부터 거의 격리되어 있어 조차가 아주 작게 나타난다. 반면에 서해와 남해는 태평양 연변의 바다로서 전체가 대륙붕으로 이루어졌다. 평균수심이 서해는 50m 미만이고 남해도 약 100m에 불과하다. 서해의 국제적인 명칭은 黃海(Yellow Sea)이고, 남해는 東中國海(East China Sea)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해는 最後氷期에 전체가 육지였으며, 제주도는 이때 한반도와 이어져 있었다. 최후빙기에는 해면이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고, 이처럼 낮아졌던 해면이 대략 현재의 높이로 상승한 것은 약 4,000년 전의 일이었다.

한반도의 沿海는 과거에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했고,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새우젓·조개젓·건멸치·건명태·자반고등어 등의 전통적 수산가공품은 전국에 널리 유통되었다. 오늘날에는 어업의 기술이 발달하고 남획이 극심해서 육지에서 가까운 연해의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수산업에서는 近海가 중요하며, 이를 포함한 우리 나라 주변의 바다는 지금도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동해에서는 한류인 북한해류와 난류인 동한해류가 교류한다. 따라서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족과 오징어·꽁치·멸치·고등어와 같은 난류성 어족이 회유하여 해에 따라 풍흉이 심할지라도 큰 어장이 형성된다. 남해는 쿠로오해류(黑潮)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수온이 높게 유지되며, 멸치·정어리·갈

치·고등어·전갱이·돔·가자미·붕장어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로활동이 연중 계속된다. 남해는 더구나 1960년대부터 김·미역·굴의 양식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국민소득의 증대로 활어의 수요가 늘어나 각종 어류의 가두리양식이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어류의 가두리양식은 섬이 많고 수면이 잔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최근에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赤潮로 시달린다.

서해는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 큰 하천들이 유입하여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서해의 대표적인 어종은 산란을 위해 회유해 오던 참조기였다. 참조기는 남획으로 귀해져서 값비싼 물고기가 되었고, 오늘날 서해에서는 뱀어·갈치·꽃게·갯새우 등이 주로 잡힌다. 서해안의 어민들에게는 갯벌도 중요한 어장이다. 갯벌에서는 바지락·굴·동죽과 같은 조개류가 생산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대적인 간척사업으로 많은 갯벌이 사라졌다. 조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조류의 흐름이 빠르고 물고기의 활동이 왕성한 大潮時에 어로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그리고 어선들은 하루에 두 번씩 반복되는 밀물에 맞추어 새벽에 포구나 어항에서 바다로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올 때가 많다. 바다로 나가지 않은 어선은 포구의 갯벌에 얹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서해안의 조차는 세계적이다. 인천에서는 大潮差가 8.1m에 이른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는 어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어민들은 이를 음력날짜에 맞추어 정확하게 예측해 왔다. 어민들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나가는 보름과 그믐 무렵의 조석, 즉 大潮를 ‘사리’, 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고 가장 적게 나가는 그 사이의 조석, 즉 小潮를 ‘조금’이라고 부른다. 사리이건 조금이건 조차는 일년을 통해 계속 변동하는데, 여름에는 증가하고 겨울에는 감소한다. 사리 중에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음력 7월 15일경의 사리를 ‘백중사리’라고 한다. 백중사리 때는 바닷물이 어항의 가로와 가옥으로 흘러넘치기도 하고, 흙으로 낮게 쌓은 방조제를 휩쓸면서 논으로 밀어닥치기도 한다. 백중사리와 태풍이 겹칠 때는 바닷물이 특히 많이 들어와 그 피해가 극심해진다.

밀물과 썰물 때 흐르는 조류는 좁은 海峽에서 빨라진다. 조선시대에 稅穀을 운반하던 漕運船들은 이러한 곳에서 빈번하게 조난을 당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왜적을 크게 무찌른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鳴梁海峽]에서는 사리 때의 유속이 최고 13노트에 이른다.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좁은 수로인 鹽河도 조류가 대단히 빠르게 흐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염하는 서해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거쳐야 하는 수로였기 때문에 그 연변의 곳곳에는 墩臺가 설치되었다. 강화도의 주요 관광지인 초지진·덕진진·광성보는 병인양요·신미양요·운양호사건 때 격전을 치른 돈대들이다. 초지진에는 격전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4) 기 후

우리 나라의 기후는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더운 대륙성기후로 요약된다. 기후는 강력한 정체성고기압에 의해 형성되는 氣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 나라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단으로는 한랭건조한 시베리아기단,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기단, 냉량다습한 오호츠크해기단 등이 있다. 겨울의 혹한은 시베리아기단, 여름의 무더위는 북태평양기단이 우리 나라로 세력을 뻗칠 때 나타난다. 오호츠크해기단은 늦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수온이 낮은 오호츠크해에서 형성되는 기단으로 이것이 우리 나라로 세력을 뻗칠 때는 전국의 날씨가 일시적으로 서늘해지는 동시에 대기가 맑아진다.

한반도는 범지구적인 熱收支의 측면에서 보면 열부족의 한대지방과 열과잉의 열대지방 사이에 자리한다. 따라서 전선을 동반한 온대성저기압이 자주 통과한다. 그리고 한여름과 초가을에 걸친 기간에는 열대성저기압인 태풍이 가끔 내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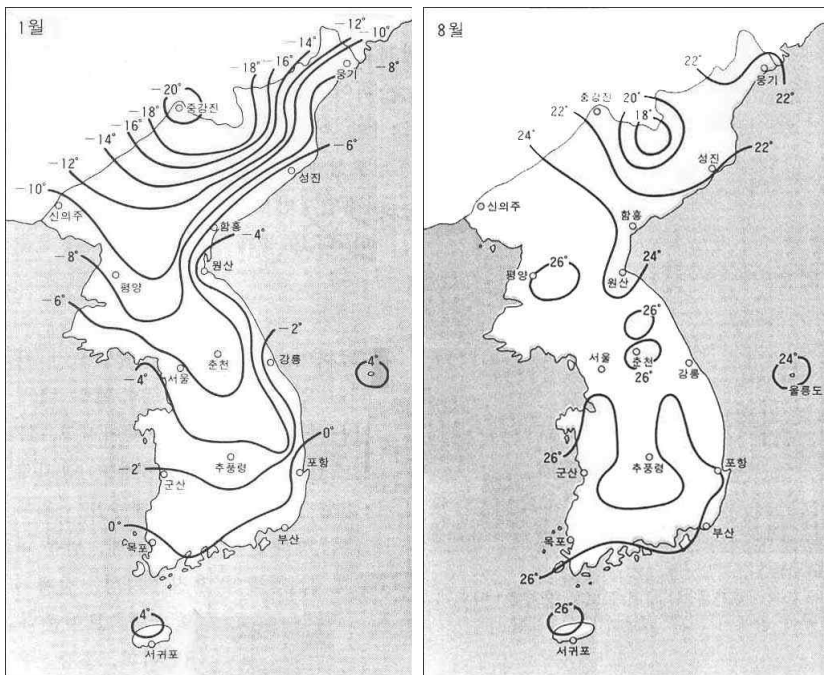
한편 우리 나라는 偏西風帶에 자리한다. 이로 인해 온대성저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날씨의 변화도 대개 서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동쪽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중국에서 각종 먼지가 날려와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언제나 전국의 대기가 투명하지 않다. 특히 봄철의 대기는 상당히 혼탁한데, 중국과 몽골에서 짙은 황사가 날려올 때는 視程이 극도로 나빠진다. 다만 초여름에 오호츠크해고기압이 강력하게 발달하여 북동풍이 불어오거나 그밖의 원인으로 중국으로부터의 기류가 차단되

면 일시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대기가 아주 맑아진다. 이러한 때에는 서울에서도 사방의 먼 산조차 매우 뚜렷하게 보여 텔레비전의 뉴스에서 보도된다.

(1) 기 온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도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겨울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달하는 시베리아고기압(시베리아기단)으로부터 한파가 주기적으로 내습할 때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여름에 아열대고기압으로서 위세를 떨치는 북태평양고기압(북태평양기단)이 확장되어 올 때는 무더위가 지루하게 계속된다. 전통가옥의 온돌과 마루는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는 데 알맞은 시설이다.

〈그림 3〉 겨울과 여름 기온의 분포



한편 한반도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남북간의 기온차가 적지 않다. 연평균기온의 분포를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이 $14^{\circ}\sim 15^{\circ}\text{C}$ 로 가장 높고, 개마고원의 삼수·갑산·풍산이 $2^{\circ}\sim 3^{\circ}\text{C}$ 로 가장 낮다. 남북간의 기온차는 겨울에 크게 벌어진다.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영상권에 머무르는 반면에, 남부내륙지방과 중부지방은 $5^{\circ}\sim -1^{\circ}\text{C}$ 이고, 개마고원의 삼수와 갑산은 -18°C 로 아주 낮다. 일최저기온 0°C 이하의 기간은 개마고원이 140일 이상이고, 중강진이 184일로 6개월에 이르는 반면에, 남해안이 대략 60일 이하이고, 제주도는 20일 내외에 불과하다. 겨울 기온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제주도의 감귤농사는 겨울 기온이 높아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남해안지방에서는 배추와 파가 밭에서 월동하며, 마늘은 겨울에도 밭에서 자란다. 1960년대까지 남부지방의 논에서 널리 행하여지던 보리의 그루갈이도 겨울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남해안에는 상록활엽수의 暖帶林도 분포한다.

여름 기온은 전국적으로 높으며, 남북간의 차이가 약 8°C 로 좁혀진다. 본격적인 더위는 7월에 시작하여 8월까지 계속된다. 대륙성기후에서는 대개 7월이 최난월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북부지방의 일부를 제외하고 장마가 끝난 후인 8월이 최난월이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7월과 8월의 기온차는 1°C 정도에 불과하다. 장마가 끝나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기단이 한반도를 덮어오면 한여름의 불볕더위가 계속된다. 8월의 평균기온은 신의주와 함흥을 잇는 선 이남의 전역이 $24^{\circ}\sim 26^{\circ}\text{C}$ 이고, 개마고원의 삼수·갑산·풍산·무산이 $18^{\circ}\sim 20^{\circ}\text{C}$ 이다. 이러한 기온은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자리한 도시에서 관측된 값에 근거한 것이고, 산지의 기온은 이보다 훨씬 낮다. 동해안의 강릉은 8월 기온이 24.6°C 이지만 인접한 대관령은 19.2°C 이다. 대관령측후소는 해발 842m에 설치되어 있다. 해발 500m 이상의 산간지방에서는 오늘날 고랭지채소가 널리 재배된다.

7월이나 8월의 평균기온과는 달리 여름의 더위를 좌우하는 일최고기온 30°C 이상의 고온일, 즉 熱帶日의 출현일수는 지역적인 차이가 크다. 열대일수는 대구·대전·전주·광주와 같은 남부내륙지방이 40일 이상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대구는 50일을 넘는다. 그리고 그것은 남

부내륙지방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남해안지방이 20일 내외, 중부지방이 30일 내외, 개마고원이 10일 이하이고, 웅기·청진·성진과 같은 동해안의 북부지방은 5일 정도에 불과하다. 여름의 높은 기온은 벼농사에 이로우나 열대일이 계속될 때는 냉방시설의 가동으로 전력 사용량이 절정에 이른다.

(2) 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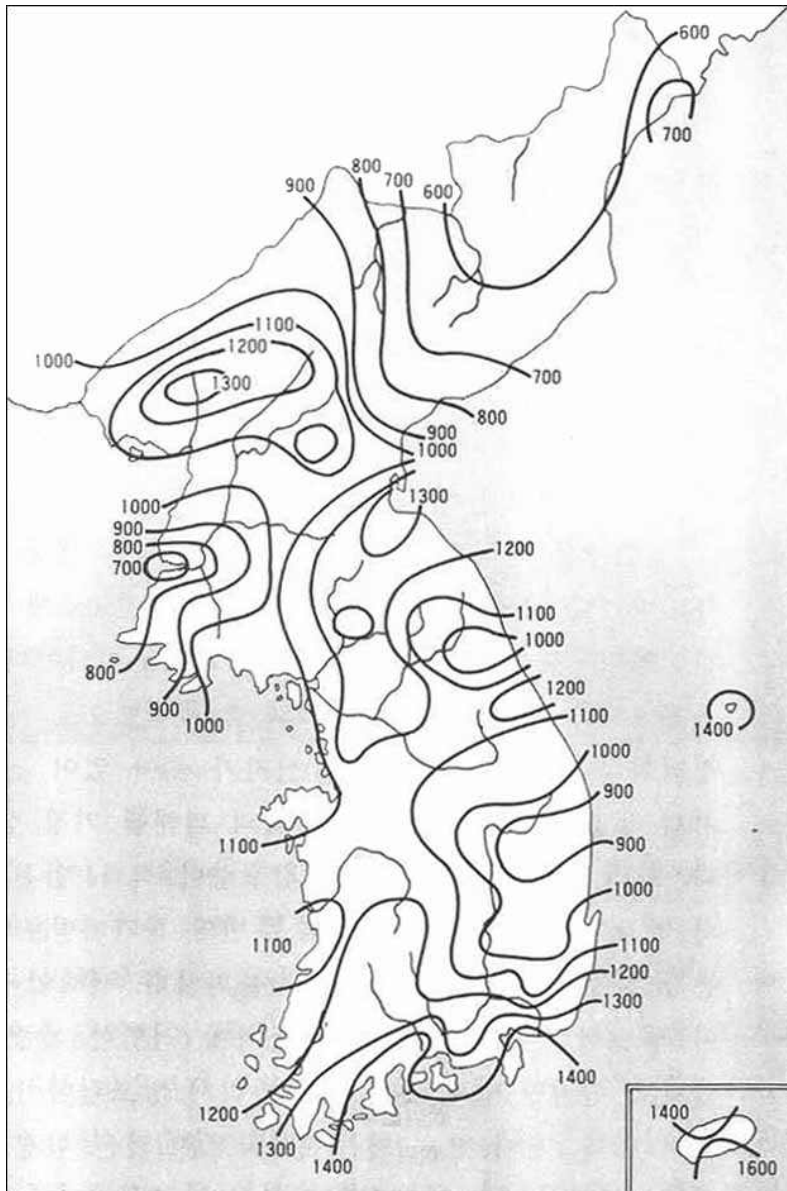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연강수량은 500~1,600mm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감에 따라 줄어든다. 반도부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해안으로 최고 1,600mm 이상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개마고원 북동부로 500~600mm이다. 강수량의 분포는 지형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지역적인 차이가 크다. 강수량 역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자리한 도시에서 관측된 값에 근거한 것으로 높은 산지는 이보다 훨씬 많다.

강수는 여름에 집중된다.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면 식물의 생장과 농업에 유리하다. 우기는 6~9월이며, 이때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장마철인 7월의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약 30%에 이른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며, 연강수량은 장마와 태풍이 가져다 주는 비에 의해 좌우된다.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더불어 발달하는 장마전선이 한반도로 상륙할 때 시작되며, 이것이 늦게 상륙하거나 빨리 북상·소멸하면 전국적으로 가뭄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장마전선은 남해안지방에 6월 하순에 걸치기 시작하여 7월 중순에는 중부지방에 도달하고 7월 하순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간다. 태풍은 장마전선이 북상한 후인 8월을 중심으로 7~9월에 내습한다. 강력한 태풍은 남해안지방에 2년에 1회, 중부지방에 4년에 1회 꼴로 내습한다. 태풍은 풍수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저수지나 댐의 물을 가득 채워주거나 오염이 심한 하천의 물을 갈아주기도 한다.

〈그림 4〉

연강수량의 분포



시베리아고기압이 맹위를 떨치는 겨울은 봄·가을과 함께 건조한 계절로서 12~2월의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10% 이하이다. 시베리아기단은 한랭건조하다. 그러나 북서계절풍이 서해를 지나면서 습기를 많이 흡수한 다음 불어오면, 지역에 따라서는 지형성강수의 형식으로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 서해안 가까이에 높은 산지가 솟아 있는 전라남·북도의 전주·정읍·고창·영광 일대에서는 북서풍이 몰아오는 폭설로 교통이 두절될 때가 있다. 폭설 중에서는 2월에 내리는 영동지방의 것이 유명하다. 영동지방의 폭설은 시베리아고기압에서 떨어져나온 이동성고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통과할 때 동해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이 몰아온다.

봄과 가을의 강수량은 겨울보다 다소 많다. 봄과 가을에는 전선을 동반한 온대성저기압이나 기압골이 통과할 때 비가 내린다. 봄의 가뭄은 파종과 모내기 지장을 주고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가을에는 비가 오지 않아야 농작물의 결실과 추수에 좋다.

우리 나라는 습윤지역에 속하는 데도 해에 따라 강수량의 변동이 심하다. 강수량이 적었던 해와 많았던 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강수량과 최대강수량의 비율이 대개 1:3을 넘는다. 연평균 강수량이 1,370mm인 서울의 경우 1949년에는 633mm, 1940년에는 2,135mm가 내려 그 차가 1,500mm에 이르렀다. 연평균 강수량에 대한 연강수량의 변동률은 전국적으로 22~25%에 이른다. 예외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水害, 적은 해에는 가뭄을 심하게 겪는다. 가뭄은 지역적으로 광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하천 연변에 국한되는 수해보다 그 피해가 훨씬 크다. 삼국시대 이래 자주 반복되었던 기근의 원인도 대부분 가뭄이었다.⁶⁾ 가뭄이 심할 때는 오늘날 대규모의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서양보다 약 200년 앞서 세종 23년(1441)에 측우기를 제작하고 곧 서울과 지방에서 우량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였다. 조선시대에도 저수지·보 등의 수리시설이 있었다. 그러나 의림지·공검지·눌제와 같이 이름이 알려진 수리시설도 규모가 작아서 가뭄이 심할 때

6)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이화여대, 1985), 156~161쪽.

는 벼농사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논이 天水畚이였다.

(3) 계 절

계절은 일년을 통해 태양의 고도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생긴다. 태음력을 사용하면 계절이 매년 같은 날짜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에서와 같이 태양고도에 맞추어 일년을 15일 간격으로 24등분한 절기를 만들어 태음력과 함께 사용해 왔다. 節氣는 오늘날에도 농촌에서 계절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널리 쓰인다. 절기는 태양이 춘분점에 왔을 때를 春分, 춘분점에서 15° 이동했을 때를 清明, 다시 15° 이동했을 때를 穀雨라고 하는 등 각각 시작하는 날에 이름을 붙여 나타낸다. 그리고 동지와 춘분의 중간을 立春, 춘분과 하지의 중간을 立夏, 하지와 추분의 중간을 立秋, 추분과 동지의 중간을 立冬이라 하여 4계절의 시초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절기는 지역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태양고도에만 기준을 둔 것이어서 기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한반도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남북간의 계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온·일사량·강수량·바람과 같은 기후요소의 변동에 바탕을 두고 自然季節을 지역별로 설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식물과 동물의 활동을 관찰하여 남북간의 계절차를 가늠할 수도 있다. 진달래와 개나리는 봄에 꽃이 가장 일찍 피는 식물에 속한다. 진달래의 개화일은 울산이 3월 20일경으로 반도부에서 가장 이르고, 이때 남동해안의 부산과 통영에서는 개나리가 핀다. 남서해안의 목포에서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진달래와 개나리의 개화일이 3월 25일경으로 약간 늦어진다. 진달래와 개나리의 개화일은 북쪽으로 갈수록 늦어져 서울은 4월 5일경, 청진과 중강진은 4월 25일경이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한여름이 왔음을 알린다. 매미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날은 제주도에서는 6월 말경,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에서는 대체로 7월 상순이다. 신의주와 웅기지방에서는 8월 상순에 매미가 울기 시작한다. 가을이 무르익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산지의 단풍은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관광객이 모여드는

단풍의 절정기는 설악산이 10월 중순, 내장산과 지리산이 10월 말 내지 11월 초이다. 단풍이 물드는 시기도 진달래의 개화일이나 매미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날과 같이 남북간에 약 1개월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와 같은 내용을 통해 북쪽은 남쪽보다 겨울이 약 2개월, 남쪽은 북쪽보다 여름이 약 2개월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소결

한반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아시아대륙과 접해 있으며, 일본열도와 아시아대륙 사이에서 육교의 구실을 해왔다. 이러한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민족은 양쪽에서 압력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았다. 그러나 벌판이 넓은 만주와는 달리 산이 많은 한반도를 차지하여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다.

한반도의 지질적인 기반은 시생대와 원생대에 속한 변성암의 여러 육괴로 이루어졌고, 화강암이 널리 분포한다. 화강암은 고대부터 각종 석물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된 지하자원으로는 무연탄과 석회석이 중요하다. 이밖에 철·중석·흑연·금·아연·마그네사이트 등 많은 종류의 광물이 산출되나 풍부하게 매장된 것은 드물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한때 ‘광물의 표본실’이라고 불렸다. 남한은 특히 지하자원이 부족하다. 한국전쟁 후 연료자원으로 크게 부각되었던 무연탄도 지금은 채산성의 악화로 거의 채굴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다. ‘금수강산’에 걸맞게 산이 많은 만큼 하천 또한 많다. 과거에 내륙수로로 이용되던 하천은 오늘날 수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산은 각종 개발로 파헤쳐지고 있고, 하천은 각종 오염물질로 수질이 아주 나빠졌다. 하천 하류의 비옥한 충적평야는 모두 해발고도가 10m 내외에 불과하며, 20세기 초까지도 수해와 가뭄이 극심해서 농토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들 평야가 근대적인 수리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다.

우리 나라에는 각종 해안지형이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다. 해안선이 단조롭고 파랑의 작용이 활발한 동해안은 사빈,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차가 큰

서해안은 갯벌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사빈은 관광자원으로 중요하고, 갯벌은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이다. 갯벌을 대상으로 한 간척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야의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대형화하여 사회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연해는 수산자원의 보고였다. 어업의 기술이 발달하고 남획이 극심해서 연해의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으나 근해를 포함한 우리 나라 주변의 바다는 지금도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섬이 많아 수면이 잔잔한 남해에서는 김·미역·굴 등의 양식이 성하고, 근래에는 어류의 가두리양식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리 나라 기후의 특색은 대륙성기후에 4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위도의 다른 나라들보다 4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여름이 열대지방처럼 덥고 겨울이 한대지방처럼 추워서 봄과 가을이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계절은 우리의 생활에 리듬과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기온과 함께 강수량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감에 따라 줄어든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습윤지역에 속하지만 해에 따라 강수량의 변동이 심해서 수해와 가뭄을 자주 겪는다. 가뭄은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수해보다 심각하다. 조선시대에도 저수지나 보와 같은 수리시설이 많았으나 가뭄을 극복하기에는 모두 규모가 작았다. 수리시설이 크게 확충된 오늘날 하천 하류의 평야지대에서는 가뭄보다 수해가 위협적이다.

〈權赫在〉

3. 인류학적 특성

자연환경은 인류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인류는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창조한다. 이런 점에서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의 육지, 해양, 기후, 식생 등을 포함한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은 한국인, 한국사회, 한국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¹⁾ 실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환경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역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반도는 유라시아(Eurasia) 대륙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은 일찍부터 러시아·중국·일본 등의 이웃 나라들과 다양한 국제관계를 유지해 왔다. 육지의 지형은 대체로 노년기에 속하여 식생이 풍부하고 토지를 개척하는 데에 유리하였다. 지질은 대부분 아주 오래 된 화성암이기 때문에 지하자원을 얻는 데에 적합하였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난류와 한류가 교류하여 여러 가지 어패류와 해조류가 서식하기 때문에 한민족의 생활에 필요한 해양 수산자원을 제공하였다. 온대 계절풍지대에 속한 한반도의 기후는 사계절의 구별이 뚜렷하고 여름의 高溫多雨로 농사짓기에 알맞아 한민족은 일찍부터 농업을 발전시켰다.

1) 한국인의 계통과 신체적 형질

인간의 신체적 특질인 체격, 피부색, 머리통의 모양, 머리카락의 모양과 색깔, 코의 모양과 크기, 눈꺼풀 등은 여러 개의 대립형질을 가진 유전자들이 모여서 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 형질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변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변화에 적응하는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변화한다.²⁾

신체적 형질의 특징으로 볼 때 한국인은 인종분류학상 몽골인종(Mongoloid)에 속한다. 한국인은 피부 색깔뿐만 아니라 곧은 머리카락과 짧은 얼굴에 광대뼈가 나옴과 눈꺼풀이 겹쳐져 있으며 둔부에 몽골반점이 있는 등 몽골인종의 공통된 신체적 형질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몽골인종은 그들의 집단이 동과 지역분포에 따라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체적 형질과 생활양식에 차이가 생겨 고시베리아족(Palaeo-Siberians)과 신시

1) 최홍준,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장왕사, 1952), 139~142쪽.

2) 박선주, 《체질인류학》(민음사, 1994), 77~79쪽.

베리아족(Neo-Siberians)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한국인은 신시베리아족에 속하며 제4빙하기의 후기구석기시대까지 시베리아의 예니세이(Yenisei)강 유역과 알타이(Altai)산 기슭에 살고 있었다. 그 후에 기온이 상승하여 빙하가 녹으면서 후기구석기시대 및 신석기시대 때 시베리아로부터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중국 동북부인 만주 서남부의 라오닝(遼寧) 지방을 거쳐 한반도 남부까지 이동하여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일 민족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한민족의 형성 및 이동 과정에서 발전된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 있어 후기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유물과 유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역사상 고대의 중국 문헌에 나타나는 肅慎, 朝鮮, 韓, 濊, 貊, 東夷 등의 여러 민족들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라오닝 지방의 한민족은 북부의 초원 지대에서 목축을 하는 한편, 남부의 평야 지대에서 농경을 주로 하면서 농경·목축 문화를 발전시켰고,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온 한민족은 자연환경의 조건에 따라 목축을 버리고 농경에만 집중하면서 독특한 청동기문화를 발전시켰다.

오늘의 중국 라오닝 지방과 한반도에서 농경과 청동기문화를 발전시킨 한민족이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서 부족연맹체의 족장사회를 통합하여 고대국가를 성립시킨 것이 바로 古朝鮮이다. 그 이후 국가가 나누어져서 몇 개의 새로운 독립국가로 분열되었다가 다시 통합되는 역사적 과정은 매우 복잡했지만 민족은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서 한민족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³⁾

체질인류학자들이 한국인 성인들을 실증적으로 계측하여 분류한 자료에 따라 한국인의 신체적 형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한국인의 피부 색깔은 담황색이며, 평균 신장은 남자가 167.7(±5.0)cm이고 여자가 155.5(±5.3)cm로서 中身型(mesosome)에 속한다. 체형은 남녀 모두 하체에 비하여 상체가 긴 上體指數 54.7로서 長上體型(macrocormic)의 특징을 나타낸다. 骨格指數는 82.7로서 골격이 비교적 짧은 短骨格型(brachyskeletal)에 속한다, 한국인은 또 어깨폭이 넓은 廣肩型(broadshouldered), 팔이 짧은 短上

3) 한상복, <대한민국 : 민족 · 언어 · 종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4,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1995), 542~545쪽.

4) 羅世振 · 張信堯, 《韓國人的體質》(中央日報社, 1981) 참조.

肢型(short armed), 다리가 비교적 짧은 短下肢型(short legged)의 체형을 가지고 있다. 頭蓋容積은 평균 1,475cc로 비교적 큰 大頭型(aristocephalic)이다. 머리통의 길이(頭長)와 폭(頭幅)의 계측치에 의해서 산출된 머리통지수(頭指數)는 短頭型(brachycephalic)으로 몽골인과 비슷하지만,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中頭型과는 구별된다. 얼굴의 길이(顔長)와 폭(顔幅)의 계측치에 의해서 산출된 얼굴지수(顔指數)는 廣顔型(euryprosopic)으로 몽골인과 비슷하고 중국인의 狹顔型과는 구별된다. 코의 높이(鼻高)와 폭(鼻幅)의 계측치로 산출된 코지수(鼻指數)는 中鼻型(mesorrhine)에 속하여 몽골인이나 일본인과는 비슷하지만 중국인의 狹鼻型과는 구별된다. 머리카락은 곧고 검은 색이며, 눈의 색깔은 흑갈 색이다. 눈꺼풀이 겹쳐진 몽골눈과 둔부의 몽골반점도 한국인 신체 형질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한국인 신체 형질의 특징들은 겉으로 나타난 생물학적 표현형(phenotype)의 평균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형질의 특징들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변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인 신체 형질의 특징과 환경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1970년대에 농촌과 도시의 남녀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인체측정학적 조사를 통해서 도시화와 발육 및 체질적 특징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가 있다.⁵⁾ 이 연구는 한국의 농촌과 도시에서 한국인의 발육과 체질적 특징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도록 환경의 요인들을 고찰의 범위 속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자료는 임상학적으로 정상적인 한국인 4,012명의 형태학적 특징, 특히 이체 계측을 통한 계측치를 주로 이용하였다. 예컨대 신장 계측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도시의 어린이가 같은 또래의 농촌 어린이보다 키가 평균 4cm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사람들간의 발육 및 신체적 특징의 차이는 도시에서만 나타나는 환경의 요인들이 발육과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개선된 영양과 보건, 의료, 위생 등이 환경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인구학적

5) 權舜九, <都市化와 發育 및 體質의 특징>(韓相福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 인류학적 접근》, 심설당, 1982), 10~24쪽.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다름에 따라 학교 아동들의 신체적 성장과 발육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⁶⁾ 본인의 출생 서열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학교 아동들의 신장과 체중, 체량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고등학생(15~17세)의 신체 발육 상태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는 보고도 있다.⁷⁾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생 체격검사 결과 2000년도 고등학교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1.90cm(여자는 160.06cm)로 10년 전인 1990년에 비해 3.29cm(여 1.95cm) 커졌고, 20년 전인 1980년에 비해서 6.7cm(여 3.6cm) 커졌으며, 30년 전인 1970년에 비해서는 8.4cm(여 5.0cm) 커졌다. 몸무게, 가슴둘레, 앉은키 등의 신체 발육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 원인은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 보건, 위생 등의 국민복지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어 청소년의 체격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2) 자연환경과 지역성

한반도 전체의 자연환경을 이루는 육지·해양·기후·식생 등의 특성은 한반도 내부에 행정구역을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차원에서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갖도록 하였다. 육지의 산맥과 하천 및 해양의 바다와 섬을 연결하는 교통의 편리함과 불편함 등이 지역구분의 기준이 된 경우가 많다.⁸⁾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최상급 지방행정구역인 道의 명칭을 처음 사용했던 고려 초기의 10개 도 중에서 嶺南道(현 경상북도 일부)·山南道(현 경상남도 일부)는 재나 산을, 江南道(현 전라북도)·河南道(현 충

6) Sunyoung Pak, *A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Maturation, and Functional Performance among School Children in Seoul,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1995, pp. 85~89.

7) 문화관광부, 《2001년도 청소년 백서》(문화관광부, 2001), 제3부 제1장 제1절, 〈청소년의 체격〉 참조.

8) 朝倉敏夫, 〈韓國社會の地域性〉(杉山晃一・櫻井哲男 編, 《韓國社會の文化人類學》, 東京: 弘文堂, 1990), 2~22쪽.

청남도)·溟西道(현 평안남북도)는 강이나 하천을, 海陽道(현 전라남도)는 바다를 경계로 하여 구획된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이처럼 산맥이나 水界 또는 바다와 섬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읍·면·동·리의 행정구역 명칭에도 흔히 적용되었다. 그밖에도 자연환경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나라 전국 8도의 도민 기질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도 하였다.⁹⁾ 함경도민은 泥田鬪狗, 평안도민은 猛虎出林, 황해도민은 石田耕牛, 강원도민은 巖下石佛, 경기도민은 鏡中美人, 충청도민은 淸風明月, 경상도민은 泰山喬岳, 전라도민은 細柳春風에 비유하여 도민의 인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행정구역을 떠나서 한반도를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데에도 재·산맥·호수 등의 지형지세가 경계의 기준이 되었다. 원산에서 인천에 이르는 추가령지구대를 경계로 하여 북쪽을 北鮮이라 하고 남쪽을 南鮮이라고 구분하는 것이라든지, 한반도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온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서쪽을 表朝鮮이라 하고 동쪽을 裏朝鮮이라고 구분한 것은 그런 예이다.¹⁰⁾ 낭림산맥을 경계로 동북부의 함경도 지역을 關北지방, 서북부의 평안도 지역을 關西지방, 태백산맥을 둘러싼 강원도 지역을 關東지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관동지방인 강원도를 다시 태백산맥의 분수령을 경계로 동쪽을 嶺東지방, 서쪽을 嶺西지방, 그리고 새재[鳥嶺]의 남쪽 경상북도 지역을 嶺南지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한반도의 서쪽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황해도의 남부·충청남도의 북부를 포함한 지역을 畿湖지방, 충청남북도 지역을 湖西지방, 전라남북도 지역을 湖南지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우리 나라 말의 方言圈과도 거의 일치한다. 한국어의 방언구획을 관북(동북·함경도)·관서(서북·평안도)·중부(경기도·충청도·황해도·강원도)·호남(서남·전라도)·영남(동남·경상도)·탐라(제주도)의 6개 방언권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¹¹⁾ 이들 지역방언은 험준한 산맥이나 큰 강,

9) 《開關》(開關社), 1925년 7월호 참조.

10) 崔南善, 《朝鮮常識問答》(東明社, 1946), 18쪽.

11) 박병채, 〈한국의 언어와 문자〉(《한국 민속의 세계》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원

넓은 삼림, 늪지대, 바다 등의 지리적 장애로 각 지역간에 내왕이 불편할 때가 가장 많이 생긴다. 이렇게 나누어진 큰 지역방언은 다시 작은 지역방언으로 갈라지기도 한다. 가령 중부방언권에 속하는 강원도방언권은 다시 태백산맥의 분수령을 경계로 영동방언권과 영서방언권으로 갈라지고, 영동방언권은 또 북부 영동방언권, 남부 영동방언권, 강릉방언권, 삼척방언권으로 나누어지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와 육지생태계에 따른 주민들의 생업이 다름에 따라서 강원도 동해안의 농촌과 어촌 사이에 방언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¹²⁾

지형·지질·기후·식생 등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농업의 특성에 따라 민속문화에 차이가 생기고, 그러한 차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을 형성한다는 가설도 있다.¹³⁾ 이 가설은 우선 잡곡을 주로 재배하는 산간의 밭농사지역과 논벼를 주로 재배하는 평야의 논농사지역,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논밭복합농사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들 3개 지역에서 관행되는 세시풍속·의식주생활·민간신앙·민속예능·발굴문화재 등의 문화요소들을 분류해 보면, 밭농사지역의 端午圈, 논농사지역의 秋夕圈, 논밭복합농사지역의 추석·단오복합권이라는 농경세시의례의 문화권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소백산맥과 남한강 유역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경계선을 축으로 하여 북부가 단오권이고, 남서부가 추석권이며, 동남부가 추석·단오복합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농민의 육지생태계와 어민의 해양생태계가 다름에 따라 농민과 어민의 자원 소유형태와 이용방법, 자본의 투자방식, 생산양식, 분배와 교환체계, 주거형태, 협동관행, 사회구조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산촌 주민과 落島 주민의 생태적 특성이 다르고, 도시인들 중에서도 사회계층에 의한 주거지역이 다름에 따라 생태적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구원, 2001), 220~224쪽.

12) 李翊燮, 《嶺東 嶺西의 言語分化: 江原道の 言語地理學》(서울大學校 出版部, 1981), 71~79·126~133쪽.

13) 金宅圭, 《韓國農耕歲時の 研究: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嶺南大學校 出版部, 1985), 449~457쪽.

3) 농민의 육지생태계와 어민의 해양생태계 특성

신석기시대에 야생식물을 재배하고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업의 기반으로 하였다. 다른 한편, 바다·하천·호수에서 어류·패류·藻類 등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고 채취하는 어로활동도 농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중요한 생계방식이었다.

인간은 모두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와 생활물자를 다른 동물과 식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항상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공생관계 또는 기생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도 역시 이런 관계로 인식할 수 있다. 농업의 육지생태계와 어민의 해양생태계를 비교해볼 때, 농민은 다른 동식물과 상호 의존적 공생관계에 있는데 반해서, 어민은 다른 동식물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기생관계에 있다.¹⁴⁾ 농민은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거기서 작물이나 가축을 가꾸고 길러서 씨를 남기고 먹는다. 즉 농민은 토지에 씨를 뿌리고 가축의 새끼를 내어 그것들이 성장한 뒤에 먹이와 생활물자를 그 동식물에 의존하는 동시에, 그 동식물의 종자보존과 개량 및 농약과 예방주사 등의 활동을 통해 동식물을 보호하고 번식시킨다. 이런 점에서 농민과 다른 동식물의 관계는 공생적이다. 그러나 어민은 양식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류와 패류 및 해조류를 기르거나 씨를 받지 않고 야생하는 자연의 동식물을 일방적으로 착취한다. 즉 어민은 수산 동식물에 의존하지만, 수산 동식물은 그들의 생존을 어민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어민의 수산 동식물에 대한 관계는 기생적이다.

한국에서 농민의 토지이용은 영토의 한정과 사적인 토지소유권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어민의 바다는 토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한한 개척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물 속의 바위나 흙 속에 서식하는 해조류나 조개류 같은 고정성 수산자원은 사유가 가능하지만, 어류와 같은 이동성 수산자원은

14) 韓相福, 〈農村과 漁村의 生態的 比較〉(《韓國文化人類學》8, 한국문화인류학회, 1977), 11~16쪽.

공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민이 동식물 자원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1차로 자본을 토지에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농기구·관개·비료·농약·종자개량 기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재에 투자한다. 그러나 어민이 바다·하천·호수 등 공동의 광대한 어장에서 수산 동식물 자원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유일한 제약은 어로의 장비와 기술 및 지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1차로 자본을 어로의 장비와 기술에 투자한다. 미개하고 단순한 어로의 장비와 기술로서는 어로활동이潮流와 바람 등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육체적 노동과 감각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동력선·나일론 어망·어군탐지기 등 고도의 어로장비와 기술을 갖추면 어군의 위치를 확인하고 포획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 어로의 장비와 기술이 발달하면 자본의 투자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어로조직이 복잡해지며 어획물의 분배체제도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 어업의 특성이다.

농민의 자산인 토지는 영구적이며 자연의 재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하지만, 어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어로장비는 항상 관리 수선되어야 하고 손실의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돌풍과 풍랑으로 인한 난파의 위험을 안고 있다. 농업에서는 작물이나 가축의 성장에 투입한 자본과 노동의 결과로서 수확이 비교적 확실하고 예측이 가능하며 안정적이다. 그러나 어업에서는 농업에서만큼 어획에 확실성이 없고 예측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불안정하다. 즉 어획량은 해마다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며, 매일의 어획량조차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두 어선이 함께 출어하여 비슷한 어로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조업을 할 경우에도 요행에 따라 어획량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업에서는 농업에서보다 기업가와 혁신가의 역할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경작·제조·수확 등의 농업노동에는 전가족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서 연령과 성별 분업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고용노동의 경우에도 비교적 작은 땅에서 노동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영농과 노동 통제하에서 감독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촌에서는 남성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여성은 해조류나 패류의 채취 및 육지의 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성별 분업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어업노동 자체도 가족원이 아

닌 선원들이 집단을 이루고 공동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선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각자에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어업에서는 농업에 비하여 상황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게임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어업경영에서는 광대한 어장과 예측할 수 없는 어류의 습성, 기후, 바다의 조건 등 자연환경 때문에 경영의 통제가 어렵고 자본주가 어로작업을 감독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선원이 아닌 자본주·선주·망주 등은 그들의 자본과 선원들의 노동에 불평등한 어획량 분배체계를 적용하여 자기들의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상쇄한다. 예컨대 한국의 서해 소흑산 可居島 멸치어장의 경우 선원 23명이 조업을 해서 어획물을 분배할 때, 거의 60% 가량은 선원이 아닌 선주와 망주 등 자본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40%를 선원들에게 분배하는데, 선원들 중에서도 선장과 기관장 등의 몫을 제외하면 일반 선원들에게는 1인당 총어획량의 1.25%밖에 돌아가지 않는다.¹⁵⁾

농민은 어민에 비해 그들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자급자족적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농민은 경제적으로 농업 이외의 다른 생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에만 묶여 있었다. 농업 자체도 가족노동에 의하여 경영되는 영세한 규모인데다가 농업기술이 단순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낮아서 자급자족의 범위를 넘지 못하였다. 잉여생산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어민은 자급의 목적보다 식량과 다른 일상의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판매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거래의 면에서 어민은 농민에 비하여 다른 경제부문의 사람들과 거래하는 빈도와 양이 훨씬 많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波市와 客主 제도의 생성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서해의 조기 파시는 특히 유명한데, 음력 1월부터 6월까지의 성어기에는 한 어장에 수백 척의 어선들과 전국 각지의 魚商들이 모여들어 선원과 어상,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업과 접객업 등의 상행위가 일시적으로 번창하여 파시를 형성한다. 육지의 시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날짜

15) Sang-Bok Han, *Korean Fishermen: Ecological Adaptation in Three Communit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pp. 43~45.

에 형성되는 정기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 위의 파시는 성어기의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서해의 3대 파시는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력 1~2월의 흑산도 파시, 3~4월의 위도 파시, 5~6월의 연평도 파시를 가리킨다. 어물객주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항구의 상인으로서 어민들의 수산물을 위탁받아 팔고 어민들에게 어업전도금을 빌려주거나 생활필수품을 외상으로 팔고 도서지방의 어민들이 육지의 항구에 나오면 숙식도 제공한다. 그들은 어민의 수산물을 싸게 사고 자기네 상품을 비싸게 팔아 이중의 이득을 본다. 따라서 어민들은 자기네 생산품을 싸게 팔고 어로장비와 생활필수품을 비싸게 사들임으로써 이중의 손실을 본다.

한국의 농촌은 전통적으로 경작지와 채마진 및 마당의 필요에 따라 주거의 분산이 불가피하며, 산간 촌락의 화전마을은 더욱 더 그런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어촌에서는 해안과 선착장의 접근 및 공동어로작업의 필요성, 입지조건, 기타의 생태적 조건들 때문에 도시를 방불할 정도로 주거형태가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과 협동의 관행에 있어서도 농촌에서는 품앗이와 같은 1 대 1의 교환노동 및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의 협동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촌에서는 협동에 의한 공동어로작업은 해도 품앗이와 같은 교환노동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동어로작업에 의한 어획물의 몫을 나누는 분배체계가 매우 발달하였다. 앞에서 본 서해 소흑산 가거도 멸치어장의 어획량 분배체계는 농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농촌에서는 가족의 일손이 많으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어 대가족이 생존할 수 있으나, 어촌에서는 건장한 남성만이 바다에서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기 때문에 핵가족의 형태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해조류의 채취권을 가구 단위로 부여하는 소흑산 가거도와 같은 낙도에서는 장남부터 차례로 자식들이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고 막내아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말자상속을 한다. 通婚圈도 농촌에서는 확대·분산되는 경향이 있으나 어촌에서는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 村內婚 또는 島內婚이 빈번하다.

4) 산촌과 낙도 주민의 생태적 특성

산촌과 낙도는 일반적으로 지리적 고립성의 면에서 비슷하지만, 지형·지세와 자원의 이용 면에서 주민들의 생태적 적응양상과 생업 및 생활양식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1) 산촌 주민의 생태적 특성

산촌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은 무엇보다 산촌 주민의 경지개혁과정, 특히 火田의 역사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우리 나라 화전의 기원은 고고학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헌에 나타난 기록만으로도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의 창녕정계비에 ‘白田’이라는 두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토지의 등급을 상·중·하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상등급은 ‘不易之地’라 하여 항상 계속적으로 경작하는 토지였고, 중등급은 ‘一易之地’라 하여 1년 동안 경작한 뒤에 다음 1년을 휴경하는 격년제의 경지였으며, 하등급은 ‘再易之地’라 하여 3년마다 1년씩 경작하는 토지였다. 그 중에서 일역지지와 재역지지는 오늘의 화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의 《증보문헌비고》에도 전국의 경작면적을 기록할 때 수전·旱田·화전을 구분한 것으로 보아 화전경작은 고대로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온 것 같다.¹⁶⁾

한반도의 지세로 볼 때 화전경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함경도의 낭림산맥 및 그 서쪽 사면과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가장 높은 고산지대이고, 둘째는 평안도 묘향산맥과 인진산맥 사이의 산악지대이며, 셋째는 강원도의 태백산맥 일대이다. 화전의 개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화전의 소재로 볼 때 산허리에 산재하는 화전의 경사도는 보통 22도에서 28도 가량이며, 아주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60

16) 小田内通敏, 《朝鮮部落調査報告 第一冊：火田民・來住支那人》(東京：朝鮮總督府, 1924), 2~4쪽.

도 내지 70도에 이르는 곳도 있다. 화전 1필지의 면적은 매우 넓어서 보통 2단보에서 5단보에 이르며 일반 농경지의 밭에 비하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일단 화전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는 먼저 나무를 벌채하는데 너무 굵은 나무들은 벌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두거나 꺾질만 벗겨서 고사목이 되게 하여 불을 지른다. 흔히 가을부터 겨울철에 걸쳐 벌채와 운반을 하고 초봄의 해빙과 더불어 불을 지른다. 불이 다른 임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바람이 없거나 적은 날을 택하여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2~3일간 걸려서 불태우고 진화한다. 타다가 남은 끄트러기는 경작에 편리하도록 몇 군데에 모아둔다.

경작은 불을 지른 다음 비가 한번 내린 뒤에 행한다. 그 이유는 재가 땅속에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행하는 최초 1년간의 화전을 부테기라 하고, 4~5년간 계속하는 것을 화전이라 하며, 보통의 화전보다 경사가 급한 화전을 산전이라고 한다. 화전의 경작방식은 평지의 전답 경작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경사가 완만하여 땅을 갈기가 쉬운 곳에서는 기운이 센 소 두 필로 쟁기질을 하는 쌍거리질을 하지만, 경사가 급하거나 나무 끄트러기 또는 암석의 노출이 많은 곳에서는 쟁기질이 곤란하므로 따비로 땅을 판다. 파종은 해빙된 뒤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으나, 일단 해빙이 되더라도 다시 추위가 몰아닥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기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화전의 파종은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즉, 서향이나 북향의日照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해빙이 늦기 때문에 파종도 보통의 화전보다 10일 내지 20일 가량 늦어진다.

화전 농작물은 파종의 시기별로 볼 때 가장 빠른 것이 조·감자·옥수수이며, 그 다음에 파종하는 것은 콩·팥·녹두 등이고, 가장 늦게 파종하는 것이 메밀이다. 토양별로는 화전 개간 초기의 비옥한 땅에 알맞은 작물이 감자이고, 그 뒤의 보통 토양에 알맞은 작물이 조 따위이며, 나중의 척박한 땅에도 잘 적응하는 작물은 메밀과 귀리 등이다. 그리고 지력의 소모를 완화하기 위해서 콩·팥 등의 콩과작물을 재배하기도 한다. 화전경작의 특징은 작물의 간작 또는 혼작에서 볼 수 있다. 원래 간작이나 혼작은 파종이나 수확에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노력도 부족하고 조방적 농업을 하는 화

전민들이 간작이나 혼작을 하는 까닭은 산악지대의 기온이 낮고 일조시간이 불충분하여 작물의 생육과 성장이 좋지 못한 자연환경 때문이다. 과종에서 수확까지 제초나 시비 등 일체의 손질을 하지 않는 것도 화전경작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작물의 수확은 모두 서리가 내리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소요된다.

화전의 땅값은 경작 연수에 따라 다르고, 경사도와 토질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도 사유림의 화전은 국유림의 화전 경작권 임대료보다 훨씬 비싸고, 3차년도의 화전은 2차년도의 것보다 반액으로 떨어지며, 4차년도 이후의 화전은 거의 값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기도 한다. 화전의 경작 연한은 보통 4~5년이고 휴경 연한은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걸린다. 화전민들은 대개 처음엔 국유림이나 사유림에 몰래 침입하여 나무를 베고 불을 지른 다음, 일시적인 간이주택을 짓고 화전을 경작한다. 그러다가 지력이 고갈되어 토양이 함유한 자연적 비료가 모두 없어지면, 가족과 함께 화전의 개간이 가능한 새로운 토지를 구하여 이동한다. 과거에 경작했던 화전의 휴경 기간이 충분히 지나 지력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구고 경작한다. 이처럼 화전의 경작과 휴경을 엇바뀌서 행하거나 작물을 돌려가며 경작하는 방식을 輪作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화전민의 遊農 특질은 자연이 부여한 토지의 능력을 혹사한다. 또 화전민들은 자연조건에만 의존하여 의·식·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생활물자를 획득하고자 한다.¹⁷⁾ 예를 들면 강원도 태백산맥의 한 산간촌락인 화전민 마을 평창군 도암면 봉산리에서는 의복의 재료를 야생 동식물에서 얻는다. 겨울철의 사냥에서 잡은 멧돼지의 가죽으로 옷옷을 만들고, 칩이나 피나무껍질로 메투리와 주루막을 만든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그대로 식수나 세탁 용수로 이용되고, 고비·고사리·누르대·취·곤두래·파주기·청옥·명이·곰취·병풍·잔대·도라지·더덕·두릅·표고·느타리 등의 산채와 버섯류는 일상의 부식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춘궁기와 흉년으로 기근이 심할 때에는 救荒 주식으로도 이용된다. 통나무 너와집은 화전민의 대표적인

17) 韓相福, 〈韓國 山村住民의 衣食住〉(《社會學報》7, 서울大學校 文理科學科, 1964), 17~36쪽.

가옥인데 그 재료는 모두 인근의 산에서 채취한 목재들이다. 석유등이나 촛불 또는 전기 대신에 관솔불로 조명을 하고 난방의 효과도 낼 수 있도록 벽에 구멍을 뚫어 만든 고콜은 산촌의 민가에서만 볼 수 있는 가옥 구조이다.

이상과 같이 화전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화전이나 지력이 회복된 과거의 화전 휴경지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다가, 마침내는 일정한 토지에 정착하여 2~3대를 지내는 동안 작기는 하지만 화전촌락을 형성하기도 한다. 화전농업을 최근까지 실행하였던 화전민의 촌락은 우리 나라의 가장 특이한 산촌이다.¹⁸⁾ 특히 외부 사회와의 접촉이 비교적 드물어 고립된 산촌에서는 과거에 화전민들이 산간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다.

(2) 낙도 주민의 생태적 특성

한반도 삼면의 바다에 산재한 3,305개의 섬들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육지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규모가 큰 섬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지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규모의 낙도들이다. 특히 낙도는 육지의 오지인 산촌과 다른 특이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¹⁹⁾ 그러한 예를 우리 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소규모의 고립된 낙도인 馬羅島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²⁰⁾

마라도는 해저에서 용암이 분출하여 해수면 위에 솟아올라 굳어지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섬 전체가 현무암의 거대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원래 이 섬은 숲이 있는 무인도였으나 1883년에 제주도의 영세농어민 4~5가구가 제주목사의 개간허가를 얻어 벌목한 다음 화전을 일군 뒤로는 숲이 없는 섬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최근까지 마라도의 주민들은 쇠똥이나 말똥을 똥감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섬 전체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빗물을 오래 저장하지 못하므로 저수지나 하천이 없고 식수와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18) 韓相福, 〈韓國 山間村落의 研究: 江原道 太白山脈中の 二個 山村에 關한 構造的 分析〉(《社會學論叢》1, 社會學研究會, 1964), 133~169쪽 참조.

19) 韓相福·全京秀, 《韓國의 落島民俗誌》(집문당, 1992), 3쪽.

20) 李起旭, 〈島嶼文化의 生態學的 研究: 濟州道 隣近 K島를 중심으로〉(《人類學論集》7, 서울大學校 人類學研究會, 1984), 1~56쪽.

다. 주민들은 지붕의 추녀에 물받이 시설을 하고, 물줄을 연결시켜 마당 한 구석에 설치한 물탱크에 빗물을 받아 저장해두고 식수와 일상용수로 이용한다.

섬 주변의 해역은 많은 암초를 포함하여 현무암석이 뒤덮여 있어서 미역·김·톳·청각·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나 전복·소라·홍합·대합 등의 패류와 성게·해삼 등의 극피동물 및 각종 어류들의 최적 서식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해안선이 대부분 단애를 이루고 곳곳에 해식동굴이 산재하여 선착장을 시설할만한 적지가 없어 간이선착장을 설치했을 뿐이다. 외부와의 교통편은 제주도의 모슬포에서 가파도를 거쳐 마라도까지 1주일에 세 번 왕복하는 소형 정기여객선 뿐이다. 그런데 바람이 많기로 이름난 제주도 중에서도 바람이 가장 많고 돌풍이 심하며 파도가 거친데다가 안개가 빈번히 끼는 곳이 바로 마라도이기 때문에 소형 여객선의 교통편조차도 번번이 두절되기가 일쑤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은 토지자원과 수산자원이다. 토지자원은 10만 평 가량의 땅이 전부이다. 개간으로 숲이 없어진 뒤로 처음 수년 동안은 토양이 비옥하여 대부분의 토지에서 농경이 가능했으나, 해가 거듭됨에 따라 풍우의 침식으로 표토의 층이 얇아지고 토양이 척박해져서 현재는 섬 남단의 일부 지역에서만 농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간 초기에는 보리·조·콩·피·메밀 등 밭작물의 경작이 가능했으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농토가 초지로 변형되었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농경지에서도 유채와 고구마를 겨우 재배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목장의 초지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소를 방목하고, 11월부터 4월까지의 겨울 동안에는 각 농가의 외양간에서 건초를 먹여 사육한다. 건초 사료는 각 집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초지에서 베어 저장한 것이다. 각 집의 초지 관리는 과거에 그들의 경작지였던 곳에 한정되고 있다. 땔감으로는 들판에 널려있는 쇠똥을 이용하고 있다. 쇠똥을 모으는 일은 주로 아이들이 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손바닥 크기의 얇은 연료판으로 만들어 바위에 널고 말리는 일은 부녀자들이 한다.

토지자원이 부족하여 농경만으로는 주민들의 식량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이 바로 해저에 서식하는 동식물군을 포함한 수산자원이다. 특히 섬 주변의 수심 20m에 이르는 수역은 주민들의 공동어장으로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제1종 공동어장

에서 해조류·패류·연체동물들을 채취하는 작업은 여성들의 일이다. 해녀들의 작업장은 이 공동어장에 한정되어 있다. 그 까닭은 마라도가 심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동어장을 벗어나면 수심이 깊어 해녀들의 잠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섬의 개척 초기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갯가에서 손으로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패류나 해조류가 풍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가 늘고 농사가 점차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모두 수산물 채취업에 집중하면서부터 수산자원이 희소해지기 시작하였다. 갯가에서 잡히던 소라나 전복 등이 물 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 잡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물안경·빚창·호미·태왁·망사리·소살 등의 채취도구는 해녀들의 잠수작업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전복·소라·성게·해삼·문어·청각·우뚝가사리·툇·미역·김 등을 채취하는 제1종 공동어장에서는 섬 전체의 해녀들이 공평하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채취작업을 할 때는 모든 해녀들이 모여서 함께 물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협동을 위해서가 아니다. 해녀의 채취작업은 근본적으로 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개별 노동에 근거하고 있는 작업이다. 해녀들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해녀들의 채취량도 각자의 잠수능력에 따라 다양하다. 잠수능력을 평가해서 열길 물 속을 잠수할 수 있는 해녀를 상군, 여덟길까지 잠수하는 해녀를 중군, 그 밖의 해녀를 하군으로 구분한다.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은 미역과 툇을 채취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미역과 툇의 채취에 대하여는 해녀회의 공동체 내규로 금채와 허채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허채기간 외에는 채취가 불가능하다. 금채기간의 설정은 가장 성숙한 시기에만 해초를 채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누군가가 이 규칙을 어겼을 때는 채취도구와 채취물 일체를 압수하고 해녀회에 소정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미역의 금채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고 허채기간은 4월 한달이다. 허채기간에 각자가 채취한 미역은 모두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전가족이 동원되어 경쟁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일한다. 채취작업은 해녀가 잠수하여 물 속의 바위에 자란 미역을 호미로 베어내면, 남자들이 물

위에 뜬 미역을 물으로 옮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 잠수가 불가능한 노인 해녀들을 위해서는 ‘할망바당’이라는 갯가의 얕은 바다에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 해녀들의 채취를 못하게 하고 할머니들만 채취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다.

툇은 1970년대부터 일본으로 대량 수출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비싸지고 귀중한 해초로 인식이 바뀌었다. 툇의 채취에도 금채기간이 정해져 있고 허채기간은 마라도의 서바다에서 1월 한달과 동바다에서 3월 한달씩 연중 두 차례에 걸쳐 있는데, 미역과는 달리 툇의 채취는 섬 주민들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툇을 채취할 때는 마라도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가있던 식구들까지도 돌아와서 함께 참여한다. 그 까닭은 툇의 수입금이 채취작업에 참여한 사람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잠수 채취작업이 여성들만의 일이라면, 어선을 이용한 어로작업은 남성들만의 일이라고 하겠다. 마라도에는 포구 시설이 없고 풍량이 심하면 배를 물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형 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각 어선에는 선주 1인과 선원 2인이 함께 타고 각자가 따로따로 자기의 낚시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배를 함께 탄 사람들을 뱃동서라고 하는데, 그들은 각자의 그물과 주낙을 치고 걷어올리는 작업을 서로 도우며 협력한다. 물때에 맞추어 그물을 치는 시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저녁나절에 쳐둔 그물과 주낙을 다음날 새벽녘에 거두어 밤사이에 잡힌 고기를 꺼낸 다음, 다시 각자의 원하는 장소에 그물과 주낙을 쳐두었다가 저녁나절에 걷어올린다.

자망과 연승에 의한 어로작업은 마라도 주변 해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획량이 매우 적다. 여기서 잡히는 어종은 방어·구리찌·옥돔·흑돔·가오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뱃동서들은 각자 따로 고기를 잡지만, 남의 배를 탄 어부는 선주에게 배상으로 어획량의 10%를 낸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큰 어획량을 올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획량은 가정에서 찬거리를 마련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남성의 어로작업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라도 주민들은 그들의 생계를 여성의 잠수 채취업에 의존한다. 여성이 생계의 대부분

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은 가내소비의 영세한 어로활동과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라도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주민들의 생존전략과 생태적·사회경제적 특성은 여성 중심의 채취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5) 도시인의 주거지역과 생태적 특성

도시인의 생활은 농어촌이나 산촌·낙도 주민들에 비하여 자연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도시 사람들은 빈번한 주거의 이동과 2차적 접촉이 많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의식이 약하고 이웃생활에 무관심한 경향이 많다.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의 경우, 그리고 안정된 도시보다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의 경우에 그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도시인의 생태적 특성이 그들의 주거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1970년대의 서울시 중류계층의 안정된 서민 주거지역과 상류계층의 고급주택·아파트 주거지역 및 하류계층의 빈민 주거지역별로 살펴보기로 하자.²¹⁾

(1) 중간층의 서민 주거지역

해방 전부터 서울에 살아온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몰려있는 안정된 서민 주거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수적인 환경에 적응해오면서 오랫동안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있는 것 같다. 서정주의 시 구절에도 萬里洞에 피어나는 아지랑이는 만리동에 사는 이의 사랑의 모습, 孔德洞에 피어나는 아지랑이는 공덕동에 사는 이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준다고 하였듯이, 오래된 서민 주거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공동체의식과 정다운 인간미를 풍겨주고 있다. 주거지역내의 서비스 시설에 있어서도 잡화상·세탁소·양장점·음식점·술집 기타 여러 가지 상점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고, 두부장수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나가며, 떡이나 과실을 이고 다니며 파는 아주머니들이 집집마다 들린다.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거나 구슬치기를 하며, 어

21) 韓相福, 〈都市生活〉(이해영·권태환 편,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제3권: 지역 사회구조와 가치,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1978), 683~725쪽.

린아이들은 동전 하나 손에 쥐고 구멍가게에 가서 사탕과 과자를 사먹는다. 그 아이들이 서로 누구네 집 아이라는 것을 알며 어른들도 단골 상점을 정해놓고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 예사다. 그래서 이웃 사이에 더욱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서울시 중간계층의 2개 주거지역(하나의 아파트주거지역과 또 하나의 일반주거지역)을 조사 분석한 연구보고서²²⁾에 따르면, 조사 대상 주부들의 96% 가량이 그들의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는 친분관계란 애매한 표현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떡이나 별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이다.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주부들은 응답자 중에서 7% 미만이었고, 30%는 보통 3~4집의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며, 33%는 5집 이상의 가까운 이웃과 별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웃간에 돈을 꾸고 꾸어주는 것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에 60% 가량이 이웃과 서로 돈을 꾸고 꾸어주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웃에 더 오래 산 사람일수록 서로간의 왕래가 더 잦으며, 이웃간에 서로 돕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컨대 응답자의 51%가 김장을 담글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고, 22%는 집이 비었을 때 지켜주며, 8%가 이웃 어린애를 돌보아주고, 22%는 혼상사에 도우며, 16%는 이웃 중에서 누가 아플 때 도움을 준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70년대에 매월 열렸던 반상회를 통하여 이웃 부녀자들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 같다. 반상회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며, 그 모임에서 행정지시가 전달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시설과 공동사업들이 논의됨으로써 이웃간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한다.

(2) 상층의 고급주택·아파트 주거지역

호화롭고 널따란 고급주택이 들어선 상류층의 주거지역에서는 집집마다 때문에 ‘개조심’ 또는 ‘猛犬注意’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있다. 높다란 담 위에

22) 李效再·金周淑, 《都市 家族問題 및 地域의 協同에 관한 研究》(梨花女子大學校 女性資源開發研究所, 研究叢書 第3號, 1972).

는 뼈죽뼈죽한 사금파리나 쇠꼬챙이를 박아놓음으로써 보통 사람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그래서 아래윗집이 3~4년을 이웃하여 살아도 피차간에 인사도 없고 냉랭하게 지내기가 일쑤다. 이런 지역에서는 어느 집이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자가용 자동차가 있어서 시장도 멀리서 보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구멍가게나 잡화상, 두부장수 그 밖의 서민 주거지역에서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어른들만 이웃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골목에 나와서 이웃 친구들과 함께 뛰노는 일이 거의 없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경우조차도 드물다. 집집마다 가정부가 있으니 김장을 담글 때 이웃의 도움이 필요 없고, 집을 비울 염려가 없으며, 어린애를 보아달라고 부탁할 일도 없다. 별식이라고 이웃간에 나누어 먹지도 않는다. 아무튼 상층의 고급주택 주거지역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하나가 중간층의 서민 주거지역이나 하층의 빈민 주거지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거형태의 면에서 상층 사람들의 계층적 상징은 호화맨션 대형아파트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강변의 고층맨션 아파트지대는 특이한 생태적 조건을 가지고, 이웃과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주의와 상업주의 냄새를 가장 짙게 풍기고 있다. 성냥갑처럼 벽으로 칸막이된 집집은 한 건물 속에 함께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며, 온갖 일용잡화도 전화로 배달시키고 들어앉아 살기 때문에 더욱 폐쇄적이다. 이러한 상층 아파트 주거지역의 생태를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주거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빈번한 주거지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54% 가량이 2~3년 안에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또 54% 가량이 다시 아파트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²³⁾ 이처럼 아파트 생활자들은 한곳에 오래 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강변의 어느 아파트지역을 묘사한 김용운의 현장소설 《외인들》에서 이삿짐

23) 金麟, 〈아파트의 實態와 아파트住民의 意識 및 行態에 관한 研究〉(《都市問題》12-2, 1977), 41~74쪽.

센터 운전기사의 말을 빌리면 12층 높이의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육천 세대에 가까운 이곳 주민들은 한 달이면 삼백여 세대, 하루 평균 열 집이 이사가고 이사를 오죠. 하기에 이곳 복덕방들은 늘 바쁘고, 우리네처럼 복덕방을 끼고있는 이삿짐센터 역시 그런 셈이죠. 그간 슷하게 이삿짐들을 날랐습죠. 그러다 보니 무슨 아파트 몇 동이라면 아 거기! 어느 새 이쯤 됐습죠, 네”²⁴⁾라고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 상황을 설명한다.

한편 수많은 복덕방들은 아파트 값과 집세를 올리고 조작함으로써 영업경기를 조성하며 기생한다. 아파트 집세만 보더라도 집주인의 입장에서선 전세나 사글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한다.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소개업자들이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전세, 몇 호는 사글세라는 사실을 훤히 꿰뚫고 있다가 그 계약기간이 임박할 때쯤 해서 집주인을 부추긴다. 먼젓번보다 집세 얼마를 더 받아줄 테니 그 계약서는 우리 복덕방에서 쓰라고. 그러면 집주인은 집세를 더 받으니 좋고, 복덕방은 양쪽에서 구전을 받아 수입을 올려 좋다. 거대한 아파트단지 안에 널려 있는 수많은 복덕방들은 다 이런 식으로 먹고산다. 물론 몇몇 이름 있는 복덕방들은 이런 야비한 짓은 애써 피한다. 굼직굼직한 계약만 취급해서 오붓하게 수입을 올리지만, 대부분의 잔챙이 복덕방들은 이 짓 앓고는 도저히 사무실을 꾸려갈 수가 없고 보니 때에 따라선 자기네끼리 서로 아귀다툼질이다. 뿐만 아니라 복덕방의 농간에 일반 시민들의 과열된 투기심까지 겹쳐 1970년대 후반부터는 걸잡을 수 없는 부동산투기의 불까지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입주보다도 전매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이상경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골탕을 먹는 실정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고급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중상층 주민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아파트생활은 돈과 전화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척척 해결되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전화만 걸면 상가에서 일용 잡화는 물론 담배·쌀·음식까지 모두가 재빠르게 배달되곤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점의 배달 소년에게 주문하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배달해주느냐고 물었더니, 과자 한 봉

24) 金龍雲, 〈外人들〉(《小說文藝》2, 1978), 169쪽.

지라도 주문만 하면 깍소리 얹고 십리도 뛰어나는 판이라고 대답한다.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래야 장사를 해먹고 산다고 한다. 심지어는 김치를 주문받아 담가주는 직업인도 있어서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배추김치 몇 포기, 무김치 몇 단, 동치미 몇 사발이라는 식으로 주문만 하면 그대로 김치를 담가다가 배달이나 현관 앞까지 배달해 준다고 한다. 결국 이런 아파트생활에서는 모든 개인이 원자화되고 고립되어 있어서 이웃과는 전혀 접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3) 하층의 빈민 주거지역

도시 영세민의 주거지역은 구릉지대를 비롯하여 하천·철로변·평지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산재해 있다. 특히 구릉지대는 빈곤의 등고선을 그리며 뻗어나가는데, 극빈자와 최근에 농어촌에서 맨주먹으로 이사온 사람들일수록 정상부를 점거한다.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전개되어 즐비한 고층건물과 차량행렬로 붐비는 거리가 마치 별세계의 낙원처럼 보여서 아래위가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빈민 주거지역 생태를 어느 외국인 인류학자의 현지조사 관찰보고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자.²⁵⁾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의 구릉지대는 대개 새로 온 이농민들이 쫓겨오는 빈민 주거지역이다. 처음에는 언덕의 비교적 아래 부분이나 중턱에 자리를 잡지만, 서울시에서 입주금이 싼 영세민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그들의 판잣집을 철거해버리면 그들은 다시 맨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가 도시재개발지역 정리로 꼭대기에서 또 쫓겨나면, 다시 더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의 산언덕에 새로운 판자촌을 형성한다.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낚시꾼·지게꾼·공장 노동자·미장이 등의 하급 노동자들이다. 남자들은 그러한 일로 하루하루 일하다가 일이 없으면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기울어진 벽을 떠받치고 비가 새는 천정을 고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곳 저곳의 골목에서는 아낙네들이 둘러앉아 노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데에서

25) 브란트, V., 〈서울의 貧民街와 離農民〉(《韓國의 傳統과 變遷》,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141~158쪽.

가릴 곳은 가리면서도 태연자약하게 목욕을 하기도 한다. 판자촌 마을은 흔히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집단을 형성하다보니, 생기 있는 대화가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한군데 모여 살기 때문에 이곳저곳의 사투리가 뒤섞여 있다. 도시에서 살아온 기간이 서로 다르고 도시생활에 대한 적응단계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웃하여 살고있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가 긴장과 불만이 이따금 요란한 논쟁으로 번져서 이웃끼리 싸우는 일도 있고, 싸워서 말을 안하고 지내는 집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이웃의 한두집 하고만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별식을 장만하면 서로 나누어 먹고, 집을 비우고 나갈 때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한마디로 이런 곳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이 농촌의 이웃관계를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빈민 주거지역이 모두 다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곳은 판잣집들이 너무나 밀집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와 모일 장소라고는 아예 없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하천과 철로변 그 밖의 평지에 있는 빈민 주거지역들은 전형적인 도시의 고립과 익명과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전혀 다른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런 곳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웃에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지저분한 셋방을 몇 주일 또는 몇 달 동안만 쓰고 살다가 나가곤 한다. 그러므로 이웃 간에 규제력이 작용할 수 없고 이기적이며 도발적이고 방종한 태도와 행위의 발산이 심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도 일단 주민들 전체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연대의식 또는 일체감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서 조직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무질서한 폭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0년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들의 대이동에 따른 廣州團地(오늘의 성남시)의 폭동사건을 들 수 있다.

〈韓相福〉